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내용 변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문 미 정

#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내용 변천 연구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문 미 정

# 인 준 서

문미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 문 초 록

음악교과에 있어서 교과서는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악과 교수학습의 중요한 매체로써 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학생들의 음악적 지식과 사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교과서 연구는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해방 이후 40년 동안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교과서안의 국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안의 국악 비중과 국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국악 내용이 증가되었는지, 또한 증가가 되었다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 1차 교육과정기에서 제 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총 46권을 중심으로 교과서안의 국악 비중의 변화와 국악 내용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차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악의 비중은 제 1차 6.11%, 제 7차 28.67%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둘째,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의 국악내용의 영역별 비중은 가창영역이 51.52%로 가장 높고 감상 29.23%, 이해 12.67%, 기악 5.40%, 창작 1.17%순으로 나타났다. 제 1차에서 영역의 불균형이 가장 심하고 제 7차에서 가장 균형 있는 양상을 보였다. 셋째, 이해영역의 내용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제 6차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다루지 않던 새로운 내용들이 수록되었다. 넷째, 가창영역에서 가창곡수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장르는 민요, 아악, 시조, 가곡, 잡가, 당악에 이르기까지 점차 다양해졌다. 다섯째, 감상영역은 다양한 장르의 감상곡이 제시되었고, 특히 새로운 창작국악곡이 지속적으로 수록되었다. 여섯째, 기악영역은 제 3차 교육과정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여 제 6차에 와서야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국악기 중에서 단소를 가장 많이 수록하였으며 가야금, 장구가 뒤를 이었다. 일곱째, 창작영역 또한 기악영역과 마찬가지로 제 3차 교육과정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5영역 중에서 비중이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변화도 가장 적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안의 국악의 양적인 증가는 극명하게 이루어졌지만 이해, 가창, 감상, 기악, 창작 5영역은 국악 비중과 내용에 있어서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 국 문 초 록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2
3.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4
1. 음악과 교육과정 중 국악에 대한 기본입장 및 개정 중점 방향 .....	4
2.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 내용의 영역별 변천 .....	5
3. 교과서의 변천 .....	10
4. 선행연구 고찰 .....	15
III. 연구 방법 .....	22
1. 연구 대상 .....	22
2. 연구 방법 및 절차 .....	23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25
1. 국악의 비중 .....	25
1) 전체 비중 .....	25
2) 영역별 비중 .....	29
2. 국악 내용 분석 .....	33
1) 이해 .....	34
2) 가창 .....	50
3) 감상 .....	69
4) 기악 .....	91
5) 창작 .....	93
V. 결론 및 제언 .....	95
참 고 문 헌 .....	99
ABSTRACT .....	101

## 표 목 차

<표 1> 교육과정 내용 영역 체계의 변화 .....	6
<표 2>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내용 변천 .....	6
<표 3>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목록 .....	11
<표 4>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목록 .....	22
<표 5>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안의 국악 비중 .....	27
<표 6> 국악의 영역별 비중 .....	30
<표 7> 제 3차 교과서의 이해영역 내용 .....	35
<표 8> 제 3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	36
<표 9> 제 4차 교과서의 이해영역 내용 .....	37
<표 10> 제 4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	37
<표 11> 제 5차 교과서의 이해영역내용 .....	38
<표 12> 제 5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	38
<표 13> 제 6차 교과서의 이해영역 내용 .....	40
<표 14> 제 6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	40
<표 15> 제 7차 교과서의 이해영역 내용 .....	42
<표 16> 제 7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	42
<표 17> 제 1차 ~ 제 7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	44
<표 18> 음악사의 내용변화 .....	46
<표 19> 제 1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	50
<표 20> 제 2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	51
<표 21> 제 3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	51
<표 22> 제 4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	53
<표 23> 제 5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	54
<표 24> 제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	55
<표 25>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	56
<표 26> 가창곡 종류 .....	59
<표 27> 가창곡의 종류에 따른 분류 .....	60
<표 28> 민요의 지역별 분포 .....	62
<표 29> 울산아가씨의 내용 변화 .....	64
<표 30> 제 1차 교과서의 감상내용 .....	70
<표 31> 제 2차 교과서의 감상곡 .....	71
<표 32> 제 3차 교과서의 감상곡 .....	72
<표 33> 제 4차 교과서의 감상곡 .....	73
<표 34> 제 5차 교과서의 감상곡 .....	74
<표 35> 제 6차 교과서의 감상곡 .....	77

<표 36> 제 7차 교과서의 감상곡 .....	79
<표 37> 감상곡의 종류 .....	88
<표 38> 감상곡의 시대별 분포 .....	89
<표 39> 제 1차 ~ 제 7차 기악내용 분석표 .....	91
<표 40> 제 1차 ~ 제 7차 창작 내용 .....	93

## 그림 목 차

<그림 1> 제 1차 교육과정 창인사 고등음악1 .....	26
<그림 2> 국악 비중의 평균 .....	29
<그림 3> 국악의 영역별 비중 .....	32
<그림 4> 제 5차 세광음악출판사의 음악사 내용 .....	48
<그림 5> 제 7차 천재교육의 음악사 내용 .....	49
<그림 6> 가창곡 수의 평균 .....	58
<그림 7> 민요의 지역별 분포 .....	63
<그림 8> 감상곡 ‘양산도’ .....	70
<그림 9> 현대 음악출판사 ‘봉산탈춤’ .....	82
<그림 10> 제 5차 금성출판사 .....	83
<그림 11> 제 7차 태성출판사 .....	84
<그림 12> 감상곡 수의 평균 .....	87
<그림 13> 감상곡의 시대별 분포 .....	90

## 악 보 목 차

<악보 1> 제 6차의 법문사 .....	67
<악보 2> 제 6차의 세광음악출판사A .....	68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교육은 교사, 학생, 교육 내용,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교육 내용의 중요성이 늘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교육내용을 조직, 구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한 국가의 교육적 철학 사조 및 인간상뿐만 아니라 교육목표에 따른 수준과 범위, 방법, 평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며, 결국 교육과정은 해당되는 시기의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는 구성된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완성되어, 국가의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본 수단이 되는 대표적인 교수·학습 자료가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육적 가치구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악교과에 있어서도 교과서는 교수·학습의 중요한 매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악과는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의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음악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교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 유산을 비교하여 그 특질과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1)</sup>

하지만 음악교과는 음악이 가지는 인간의 정서적 발달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본질적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지식 중심 교육과정으로 인해 선택과목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

1) 진영은, 조인진, 「교과 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p. 257.

또한 우리나라 음악 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국악 교육은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일본의 강제적인 서양음악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퇴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문예 진흥 5개년 계획으로 인해, 대학의 국악과나 국악 전문교육기관에서만 이루어지던 국악교육이 각 학교 급별로 배정되어 국악감상과 우리나라의 고유 악기로 우리의 민족 음악을 이해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sup>2)</sup>

또한 1975년 국적 있는 음악교육을 목적으로 결성된 현 국악교육학회의 전신인 한국 음악 교육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여 국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악이 널리 장려되었다.<sup>3)</sup>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제 5차 교육과정 이후로 전통음악의 학습을 점차 강조하고 있으며,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의 중점 방향 중 하나로 우리 음악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교육을 내세웠다.<sup>4)</sup>

그러나 현행교과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아직도 서양음악이 국악에 비하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안의 국악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국악 내용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중학교 교육의 심화 및 공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고등학교의 음악교육 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국악교육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국악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문제

---

2) 앞의 책, p. 258.

3) 서한범, 「국악통론」(서울: 태림출판사), 2008, pp. 277~278.

4)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서울: 교육과학사), 2008, pp. 135~137.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제 1차 교육과정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내용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둘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국악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셋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국악내용 중 이해영역과 활동(가창, 감상, 기악, 창작)영역은 각각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서 중 국악에 관한 내용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둘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중에서 일반계 음악교과서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며, 실업계, 특수 목적계 고등학교의 교과서는 제외하였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해서는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 발행된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현 실정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사용되는 교과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교과서연구재단에 소장되어있는 제 1차부터 제 7차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총 46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한정적인 연구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적인 것으로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중 국악에 대한 기본입장 및 개정의 중점사항, 국악 내용의 영역별 변천, 교과서의 변천,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음악과 교육과정 중 국악에 대한 기본입장 및 개정 중점 방향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은 해방 이후 40년 동안 서양 음악 위주로 이루어져왔으며, 교과서에 제시된 국악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이 아닌 한국 음악가가 서양음악 양식으로 작곡한 곡들을 주로 가르쳐 왔다. 또한 제 1차 교육과정에서는 애국애족의 정신함양, 민족의 국제문화 계승을 통한 세계문화의 창조발전에의 공헌과 같은 교육방침을 주장하면서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우리 음악문화를 교육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sup>5)</sup>.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국악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학교의 국악교육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음악 교과서안의 국악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sup>6)</sup>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제 1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애국애족의 정신함양, 우리나라의 문화향상에의 기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음악을 역사적으로 감상하고 고창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 3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정밀하게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음악의 본질적 문제가 학습되고 해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학습 내용의 체계화와 전통 음악의 소재 선정의 기준을 설정하였다.<sup>7)</sup>

5) 이성천,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서울: 풍남), 1994, pp. 11~14.

6) 권덕원, 『한국음악교육: 5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교육연구, Vol. 27(2004), p. 45.

7)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IV)」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 p. 4.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음악문화의 이해를 통해 음악 문화유산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능력을 함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성 계발을 위한 내용 구성, 개념적인 지도를 지향하고 활동 중심의 음악교육을 강조하여, 통합적 학습 방법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전통 음악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고 전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학습 되도록 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입장의 하나로 전통음악학습을 강조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sup>8)</sup>에서는 개정 중점방향 중 하나로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국악 교육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 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여 각 음악 문화의 음악적 특질과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음악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sup>9)</sup>은 개정 중점방향 중 하나로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를 제시하였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되어 온 국악 내용의 구체화 작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개정의 방향에 맞게 국악 교육 내용을 선별, 체계화하면서 교사들에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상세화 하였다.

활동 영역에는 시조 초장이나 창작 국악곡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판소리 한 대목 듣고 따라 부르기, 가곡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교수·학습 방법’의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국악 학습을 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 2.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 내용의 영역별 변천

8) 위의 책, p. 10~11.

9)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9: 음악, p. 10.

내용영역은 이해, 활동영역별로 세분화 되어 제시 되었다. 교육과정기별로 내용영역은 이해와 활동영역을 기본 틀로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악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의 변화를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교육과정 내용 영역 체계의 변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내용영역	음악의 기초이론	.	.	.	기본능력	.	이해	이해
	가창	가창	가창	가창	표현능력	표현	표현	활동
	기악연주	기악	기악	기악				
	창작	창작	창작	창작	감상능력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감상	.	.	.	
	.	.	.	.	.	.	.	

제 1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음악과 내용영역 중에서 국악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음의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국악내용 변천<sup>10)</sup>

교육과정	내용	
1차	감상	· 민속 음악에 관련하여 국악, 동양 음악의 구성과 독자의 미, 연주 형태를 이해하고, 그 음악을 감상한다.(3학년)
	음악의 기초이론	· 우리나라 음악 이론도 연구한다.(3학년)
2차	가창	· 우리나라의 음악적이고 고상한 가곡 <sup>11)</sup> 과 민요

10) 이경환 외2, 「초·중·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기준(1955~1997)」,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pp.195~265.

		음악 I	부르기(전 가창 교재의 30% 이상) · 여러 장조와 단조 및 우리나라 음계로 이루어진 곡조의 보고 부르기 및 초견으로 부르기 · 실제 표현에 필요한 악전과 기타 이론의 이해 (음계-우리나라 음계 포함)
		음악 II	· 우리나라의 음악적이고 고상한 가곡과 민요 부르기(전 가창 교재의 2% 이상)
	기악	음악 I	· 여러 장조와 단조 및 우리나라 음계로 이루어진 곡조의 익숙한 시주
	창작	음악 II	· 온음계적 음정과 반음계적 음정으로 이루어진 가락의 청음 및 작곡 (여러 장조와 단조 및 우리나라 음계로)
	감상	음악 I	· 악곡의 여러 종류 및 악기 편성에 대한 이해와 감상 (민요) ·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
음악 II		· 여러 민족의 생활, 풍속, 습관 등과 음악과의 관련성 고찰 · 자매 예술과의 관계 및 여러 민족 문화와 음악의 관련성 고찰 ·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	
3차	가창		· 여러 장조와 단조 및 우리나라 음계로 이루어진 악곡의 보고 부르기 및 초견으로 부르기 · 실제 표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의 이해 (음계-우리나라 음계 포함) · 우리나라의 음악적이고 훌륭한 가곡과 민요 (전 가창 교재의 50% 이상 <sup>12)</sup> )
	기악		· 악기(우리나라 악기 포함)의 연주 기능을 체득한다.
	창작		· 여러 가요 형식에 대한 이해와 가락 짓기 (여러 장조와 단조 및 우리나라 음계)
	감상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민속 음악에 대한 이해 및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요, 구군악, 농악, 가야금 산조, 국악 합주 등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감상</li> <li>·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 이해</li> </ul>	
4차	기본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현악에 쓰이는 악기 및 여러 민속 악기의 음색과 특징을 파악한다.</li> </ul>	
5차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우리나라 음악과 다른 나라의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기</li> <li>· 우리나라 및 다른 나라의 음악을 감상하기</li> <li>·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감상하기</li> <li>·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li> </ul>	
6차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단의 변형</li> </ul>	
	표현	가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나라의 민요를 시김새 넣어 부르기</li> </ul>
		기 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간보를 보고 연주하기</li> <li>· 여러 장단을 치기</li> </ul>
		창 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에 의한 가락 및 전통 음악풍의 가락 지어 적기</li> </ul>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극, 오페라, 오라토리오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성악곡을 감상하기</li> <li>· 제레악, 줄풍류, 소나타, 교향곡, 협주곡, 푸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기악곡을 감상하기</li> <li>· 전통 음악의 특징에 대하여 관심가지기</li> <li>· 우리나라 및 서양의 음악사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기</li> </ul>		
7차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 : 여러 가지 기본 장단과 변형 장단,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꼴 발전과 변화</li> <li>· 가락 : 민요 음계, 시김새, 꾸밈음</li> <li>· 형식 : 연음 형식,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 형식, 잡가/다성 음악 등의 성악곡</li> <li>· 음색 : 민속 악기</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는다. (민속 악기)</li> <li>· 잡가, 창극, 뮤지컬, 다성 음악 등 성악곡과 실내악곡,</li> </ul>	

		무용곡, 창작 국악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음악과 민족, 여러 양식의 음악)
2007 개정	활동	· 가곡, 민요 부르기 · 가곡의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이해	· 여러 가지 장단 · 악곡의 종류(현대 전통 음악)

제 1차 교육과정은 내용영역을 각 학년의 지도 목표와 그 내용에서 가창, 기악연주, 감상, 음악의 기초 이론, 창작영역으로 구분하여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국악내용은 5영역 중에서 감상과 기초 이론 영역에서만 제시되었고, 그 또한 3학년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내용이 매우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제 2차 교육과정은 음악 I<sup>13)</sup>과 음악 II<sup>14)</sup>로 나누어 지도 내용을 제시하였다. 내용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 1차에 비하여 각 영역별로 국악내용을 비교적 고르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은 민요와 음계에 치중하고 있어 여전히 국악보다는 서양음악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제 3차 교육과정부터 학년별 · 이수단위별 구분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제 3차의 경우 내용영역은 제 2차와 같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영역으로 분류되었고, 제 2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내용상 큰 차이점은 없다. 하지만 감상부분에서는 민요, 구군악, 농악, 가야금 산조, 국악 합주 등 구체적인 악곡의 종류를 언급하여 다양한 국악감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은 내용영역을 기본능력, 표현능력, 감상능력 3영역으로 나

11)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나라의 가곡은 우리나라의 작곡가가 작곡한 서양음악의 형식을 따른 음악이므로 국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전 가창교재의 30%이상이라는 부분이 모두 국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12) 위의 각주 13에서 말한바와 같이 전 가창 교재의 50% 이상이 모두 국악이라고 볼 수 없다.

13) 음악 I은 6단위를 기준으로 이수해야할 학습과정을 말한다.

14) 음악 II는 음악 I의 과정 중 그 1/3을 이수한 다음 계속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42단위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할 학습과정이다.

누었다. 3영역 중 기본능력은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으로 분류되고 표현능력은 가창, 기악, 창작으로 분류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은 내용을 영역별로 세분화시켜 제시하고 있지만 국악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 교육과정을 통틀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각 영역의 모든 학습활동에서 전통 음악을 충분히 다루도록 밝히고 있어, 결국 모든 내용에 국악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5차 교육과정은 내용영역을 표현, 감상 2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제 5차에서도 국악에 대한 내용이 적은 듯이 보이지만, 제 4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영역의 활동에서 전통음악을 적절히 다루도록 밝히고 있다. 또한 감상부분에서 현대의 국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은 국악교육을 강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반영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내용체계는 이해, 표현(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구분되며, 이전의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민요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장단, 시김새, 정간보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도록 제시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을 학교 급별이 아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으로 분류하여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내용은 이해 영역의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과 활동영역의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으로 나누어 진다. 국악내용은 이해에서는 리듬, 가락, 형식, 음색에서 활동에서는 감상에서만 나타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에 있던 이해영역과 활동영역 이외에 생활화영역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국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지만,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악곡을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에 국악도 포함되어 있다.

### 3. 교과서의 변천<sup>15)</sup>

15)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2007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서는 발행전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지칭하며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서책 · 음반 · 영상 ·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 이러한 교과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인 국정 교과서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인 검정 교과서로 구분된다.<sup>16)</sup>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는 제 1차 교육과정기부터 제 7차 교육과정기까지 검정 교과서로 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발행된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서 목록은 다음의 <표3>과 같다.

<표 3>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목록<sup>17)</sup>

교육과정	출판년도	교과서명	출판사명	저자
1차	1956	고등음악 1·2·3	창인사	이홍렬
	1956	고등음악교본	국민음악연구회	이강엽
	1956	고등음악통론	국민음악회	김형근
	1956	새고등음악(남,여)	새로이출판사	금수현
	1957	고등음악	민중서관	나운영
	1957	고등음악1·2	예술교육사	김성태
	1957	고등음악	친우문화사	이승학
	1957	고등음악	예술교육출판사	김성태
	1957	고등음악교본	국민음악연구회	이강엽
	1958	가곡집	음악교재연구회	이규성외1
	1960	고등음악(상)	한국검인정교과서(주)	김달성
	1962	합창곡집	친우문화사	김달성
2차	1968	국악도감	일조각	이훈종
	1968	표준음악	호악사	정진우
	1968	새음악1	국민음악연구회	이강엽
	1968	음악	대한교과서	문교부
	1968	새로운음악	정음사	이홍렬외1
	1973	새음악1	일진출판사	서수준

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의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6) 허강(2002)의 5, 『한국 검인정교과서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p. 17.

17) 최영복외 3(1998), 『한국 교과서 목록 작성 및 그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목록만 추가하였다.

	1973	음악(인문계)	동성문화사	신상우
	1974	새음악	현대악보출판사	정희갑외1
	1968	최신음악2	민중서관	김대봉
3차	1977	새로운음악1	정음사	이홍열외1
		새음악1	국민음악연구회	이강염
		새음악1	일진출판사	서수준
		새음악1	현대악보사	김성남외1
		음악1	경학사	손대업
		음악1	동아출판사	김갑
		음악1	동아출판사	박태준외2
		최신음악1	양문사	김순열외1
		최신음악2	민중서관	김대봉
	1979~ 1983	음악	규문각	이상근
			국민음악	이병두외1
			동아출판	김갑외1
			학문사	이용일외1
			교문사	김성태외1
4차	1984~ 1989	음악	태림출판	최춘근외1
			교학사	정희갑외1
			화학사	이상근외1
			고려서적	장창환
			삼화서적	이상덕
5차	1990~ 1996	음악	세광음악	오동일
			세광음악	김달성외1
			동아서적	이상덕
			학연사	최동선
			지학사	정영택외1
			동아출판	정세문외3
			현대음악	신귀복외1
			금성교과서	안형일외2
6차	1996~ 2001	음악1	두산동아	이홍수외2
			법문사	이연도외2
			보진재	정세문외2
			세광음악출판사	오동일외1
			세광음악출판사	김준수외1
			지학사	정영택외1
			태림출판사	우동희외1
			태성	조창제
			현대음악출판사	신귀복외1
			교학사	정영택 외1

7차	2002~	음악	대한교과서	김성수 외2
			두산	이홍수 외3
			박영사	이강을 외3
			천재교육	백병동 외4
			태성	서한범 외3
			세광음악출판사	고준선 외1
			현대음악출판사	윤경미 외1

<표 3>에서와 같이 교육과정이 바뀔에 따라 교과서도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교과서가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온 교과서가 교육과정기별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변천되어 왔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sup>18)</sup>

제 1차 교과과정기에는 교과서의 내용체재를 조직하고 단원 학습제를 도입하는 등 교과용 도서편찬의 정착에 힘쓴 시기로, 교과서 편찬체재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하여 ‘검인정 교과서 형식 사열기준’과 ‘교과용 도서 체재 기준’을 발표하였다. 기준안에 의하면 제 1차 교과서는 5·7판<sup>19)</sup>에 5호 활자를 사용하고 1면의 본문은 750자 이내로 본문은 25행을 넘을 수 없고 1행은 32자를 넘을 수 없었다. 또한 고등학교용 교과서는 최소 10포인트로 규격을 제한하였다.

제 2차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서의 판형이 국판<sup>20)</sup>으로 통용되었고, 집필상의 유의점에 따라 단원의 순서가 구안되었다. 또한 한글 전용정책으로 1970년부터 『국어Ⅱ』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 한자를 제거하였다.

제 3차 교과서는 출판형식에 있어서 전면적인 원색화 체재를 도입하여 1979학년도부터 모든 교과서에 6쪽 이내의 원색화보를 게재하였고, 용지제도 아트지<sup>21)</sup>(100g/m<sup>2</sup>)를 화보용으로 사용하였다.

18) 이종국, 「한국 교과서상」 (서울: 일진사), pp. 29~44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19) 책자의 판형(版型) 가운데 하나로 152×225mm의 크기를 말한다.

20) 종이의 원지(原紙) 치수의 하나로 636×939mm의 크기를 말한다.

21) 아트지는 주로 원색 인쇄를 해야 하는 표지나 화보 혹은 본문 용지로 사용된다. 종이의 광택이 높고 무게가 무거운 반면 잉크의 흡수성이 떨어지고 내쇄력이 약하기 때문에 변조의 위험이 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12&docId=54434079&qb=66+4710J7KSR7KeI7Ke>)

제 4차 교육과정기는 외적체재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시기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출판 형식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용지는 음악, 미술, 서예 등의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 미색 중질지<sup>22)</sup>(70g/m<sup>2</sup>, 서적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판형은 4·6배판으로 확대하여 교과서에 학습내용을 직접 쓰고 그려 넣을 수 있게 하여 교과서의 실용성을 높였다. 또한 조판<sup>23)</sup>에서는 컴퓨터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제 5차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서 편찬에 있어 만화식 기법을 교과서의 본문 속에 적용한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교과서의 ‘편집·편찬 체재’를 고정된 틀로 제시하여 정부 통제형 교과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편집·편찬 체재’에 따르면 판형, 쪽수, 제본, 활자 등은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원의 순서 표시는 대단원 I, II..., 중단원 1, 2..., 소단원 (1), (2)..., 분단원 ①, ②...와 같은 통일된 체재를 마련하였다.

제 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교과용 도서의 체재기준(교육부 고시 제 1992-13호)’이 고시되어 편집과 제작에 따른 전반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이는 1995년 1월 19일에 폐지 고시되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 7차 교육과정기에는 외적 체재에 있어서 원색 사용의 범위를 높이고 판형을 4·6배판으로 통일하였다. 교과서 개발에서는 연구·집필진으로 경험 있는 일선 교사를 투입시켰고, 집필자와 편집자의 실명제를 도입하여 그들의 책임

---

A&enc=utf8&section=kin&rank=4&sort=0&spq=0&pid=f%2BZZ5B331yGssbAlNRossv--308207&sid=S@EEGTjh4EsAAHaHFDU)

22) 중질지는 모조지 같은 상질지에 비해 질이 약간 떨어지는 종이이며 어느 정도의 백색도와 광택, 그리고 평활도가 있는 종이이다. 대체적으로 단행본이나 흔히 보는 출판물의 본문 용지로 많이 사용하며 원색 인쇄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질지는 백색 중질지와 미색 중질지로 나뉘며, 미색 중질지는 진한 미색을 띄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3&dirId=312&docId=54434079&qb=66+47IOJ7KSR7KeI7KeA&enc=utf8&section=kin&rank=4&sort=0&spq=0&pid=f%2BZZ5B331yGssbAlNRossv--308207&sid=S@EEGTjh4EsAAHaHFDU>)

23) 원고에 따라서 골라 뽑은 활자를 원고의 지시대로 순서, 행수, 자간, 행간, 위치 따위를 맞추어 짜는 것을 말한다.(<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405400>)

있는 집필을 도모하였다. 교과서에 편집·디자인의 개념을 강조하여 텍스트 중심의 판면 설계 방식을 지양하고, 편차 조직의 대폭적인 확대와 용지의 고급화 실현이 이루어졌다.

####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제 7차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국악내용 변천에 대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선행연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연구와 고등학교의 논문 중 교육과정에 따라 음악교과서를 분석한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시영<sup>24)</sup>은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곡 비교 분석연구 : 제 4차, 6차, 7차, 교육과정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감상 영역의 내용을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으로 나누어 정리함으로써 감상지도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 및 교과서 개편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한 교과서는 강원도 원주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주로 선정된 고려서적(제 4차), 두산동아(제 6차), 세광음악출판사(제 7차)이고, 제 5차 교육과정은 제 4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많고 바뀐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분석은 이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부분으로 나누어 영역별로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 영역별 비율은 가창 부분이 제 4차 43%, 제 6차 40%, 제 7차 37%로 5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서양음악과 전통음악의 감상부분을 비교한 결과 제 4차 교육과정에서

---

24) 이시영,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곡 비교 분석연구 : 제4차, 6차, 7차, 교육과정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6.

는 전통음악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제 6차에서는 전통음악의 비율이 24%였고, 제 7차에서는 42%로 전통음악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것은 제 6차, 제 7차 음악과 교육목표에서 전통음악의 중요성을 명시한 대로 지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전통음악의 시대별 분포에서는 삼국시대를 포함한 조선시대의 작품이 80%이상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고, 현대 창작곡 작품의 빈도수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악의 장르별 분포에서는 제 6차에서 기악곡이 67%, 성악곡이 33%였던 것에 비해 제 7차에서는 기악곡이 19%, 성악곡이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 7차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의 민요나 잡가와 같은 짧은 곡들이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시영은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교과서의 사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분석결과로 제 4차, 제 6차,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교과서와 잘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각 차수별로 1종의 교과서, 즉 총 3권의 교과서를 분석하였고, 음악교육과정의 여러 영역 중에서 감상영역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에는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다.

신종만<sup>25)</sup>은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 연구”를 통하여 국가수준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고찰함으로써 차기 음악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보다 바람직한 체계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외국의 음악교육과정과 비교 분석한 후, 제 1차부터 제 7차까지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구성 체계, 교과서의 영역별 비율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음악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목차를 중심으로 활동영역의 악곡수의 비율 변천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

25) 신종만,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6.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의 성격과 목적에서 음악의 생활화, 음악의 역사, 사회·문화적 맥락 등과 같은 음악을 통한 음악교육은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성이 미흡하다.

둘째, 음악 지도내용으로 음악수업에서 이해와 활동의 통합적인 지도와 창의적인 음악활동의 표현, 음악하기가 강조되었다.

셋째, 이해 영역은 제 1차에서 제 3차 교육과정까지는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제 4차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는 개념이해 학습이 아닌 실용 중심의 통합적인 음악학습이 제시되었다.

넷째, 활동영역에서는 가창영역이 제 1차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 음악수업의 주된 활동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국악교육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다양한 활동과 교수 방법의 제시가 부족하다.

김향미<sup>26)</sup>는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연구”를 통하여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국악내용과 비율 분석을 통해 국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정 및 음악 교과서의 국악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내용이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균형 있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고, 영역별로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영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학년별 연계성이나 배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견된다. 또한 국악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는 말이지 서양음악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국악의 비율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6) 김향미.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003.

둘째, 교육과정의 국악 관련 내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 1차에서 4.4%, 제 2차에서 7.7%, 제 3차에서 9.2%로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제 4차에서는 국악 관련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제 5차에서 10.7%, 제 6차에서 18.5%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제 7차에서는 13.9%로 하락한다. 이는 국악교육에 일관성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음악 교과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국악가창영역에서는 전래동요와 민요만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소 어렵다고 할지라도 고학년에서는 가사, 시조와 같은 다양한 성악곡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국악 기악 영역에서 장구와 단소가 주로 제시되는데, 장구는 대개 민요의 반주용으로만 사용되고 독자적인 악기로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또 썰과리, 징, 북 등의 악기는 학년에 따라 연계성 있게 제시되지 못해 한번 다루어 보기도 힘든 상황이며, 가락악기로 단소만 제시되는 것도 문제점이다.

국악창작영역의 내용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동들이 활동하기에 다소 어렵고 학년별로 균형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

국악 감상곡은 가창·기악·창작·감상의 네 가지 영역중 대체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국악교육이 감상에 치우쳐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김효선<sup>27)</sup>은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을 통하여 제 1차 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국악 교육내용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정규검정과 재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 총 141권의 국악가창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 가창 내용에 비해 국악 가창 내용이 부족하다.

둘째, 국악 가창 내용의 비중이 민속악(93.3%) 중에서도 민요(86.7%)위주로

---

27) 김효선,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08.

편중되어 있고 민요의 지역도 특정지역 위주로 선정되어 있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되는 곡목이 편중되어 있다.

넷째, 널리리아, 뱃노래, 새야새야, 임금님의 행차는 곡명이 통일되지 않았다.

다섯째, 장단에 있어서는 굿거리장단과 세마치장단이 주를 이루었고, 신고산타령, 한오백년, 몽금포 타령 등 일부 곡들은 장단이 통일되지 않았다.

여섯째, 국악 제재곡이 오선보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과서에 보다 많은 국악 가창곡이 수록되어야 하며 다양한 장르와 지역, 장단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악의 지도에 우리 음악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적합한 정간보의 이용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 제작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국악교육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서양음악 전공자가 대부분인 음악교사들을 위해서 교과서에서 국악 내용이 바르고 일관되게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김화정<sup>28)</sup>은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연구”를 통하여 현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하여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8종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유사한 방법과 일률적인 제안을 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분석을 통해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부적절하고 미흡한 내용 등을 살펴서 국악분야의 개선과 보완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영역의 문제점으로 지역별 민요의 음계설명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 일부 악곡에 대한 설명의 부족, 시김새의 학습 내용이 미흡함을 꼽았

---

28) 김화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9.

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각각의 교과서가 통일되지 않은 지역별 민요의 음계를 제시하기보다는 선법과 토리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악곡에 대한 설명이 보다 명확하고 필수적인 내용수록이 필요하다는 것, 시김새의 정의와 내용을 수록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활동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가창영역의 문제점으로 학년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악곡의 선정, 제재곡 구성음계의 적절치 못한 표기, 장르의 불균형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학년의 수준에 적합한 악곡선정, 학생의 이해와 편의를 고려한 학습내용 제시, 가창 제재곡의 다양한 장르 선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악영역의 문제점으로 악기의 연주법, 운지표, 연주부호가 통일되지 않다는 점과 장단악보를 서양식으로 기보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악기의 연주법, 운지표, 연주부호의 통일, 구음 장단보다 정간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장단 악보 제시 및 보편화를 들고 있다.

넷째, 감상영역의 문제점으로 감상의 선행학습인 이해부분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과 감상곡의 설명이 명료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개선안으로 효율적인 감상방법으로 감상요점을 제시하는 것과 다양한 국악곡 특히, 창작 국악곡을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창작영역에서는 어느 교과서에서나 제시되어 있는 변형 장단 만들기, 가락 짓기와 같은 활동 외에 신체 표현하기, 제재곡을 이용한 연극 만들기 등과 같은 다양하고 통합적인 창작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사한 주제의 선행논문들과의 차별성을 위해 교과서의 분석을 통한 각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도한 대로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 가창곡의 장르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선정이 필요하다, 또는 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용을 더 많이 수록하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함이 느껴졌

다.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교과서의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교과서의 국악내용분석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위주로 이루어졌고, 고등학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찾아 볼 수 없었다. 고등학교의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변천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영역의 비율에 대해 분석하거나, 감상이나 서양음악사 등과 같이 국악보다는 서양음악 위주의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국악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도 찾아 볼 수는 있었지만 한 교육과정에 국한되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 미비한 부분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내용의 변천과정을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연구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 1차 교육과정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실제 연구에 사용된 교과서는 국립 중앙 박물관, 한국 교과서 연구재단과 한국 교육 개발원에 소장되어 있는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제 1차 8종, 제 2차 3종, 제 3차 5종, 제 4차 5종, 제 5차 8종, 제 6차 9종, 제 7차 8종의 교과서 총 46권이며, 교과서 목록은 <표 4>와 같다.

<표4>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목록

교육과정	교과서명	저자	출판사명	발행년도
1차	고등음악 1,2,3	이승학	친우문화사	1967
	고등음악 상,하	김달성	한국교과서주식회사	1967
	고등음악 1,2,3	이흥렬	창인사	1967
2차	새음악	정희갑 외1	현대악보출판사	1968
	음악(인문계)	신상우	동성문화사	1968
	표준음악 I	정진우 외1	호악사	1974
3차	음악	이상근	규문각	1981
		이병두 외1	국민음악연구회	
		김갑 외1	동아출판사	
		이용일 외1	학문사	
		김성태 외1	교문사	
4차	음악	최춘근 외1	태림출판사	1984
		정희갑 외1	교학사	
		이상근 외1	화학사	
		장창환	고려서적	
		이상덕	삼화서적	
5차	음악	오동일 외1	세광음악출판사	1990
		김달성 외1	세광음악출판사	
		이상덕	동아서적	
		최동선	학연사	

		정영택 외1	지학사	
		정세문 외3	동아출판사	
		신귀복 외1	현대음악출판사	
		안형일 외2	금성교과서	
6차	음악 1	이홍수 외2	동아출판사	1996
		이연도 외2	법문사	
		정세문 외2	보진재	
		오동일 외1	세광음악출판사	
		김준수 외1	세광음악출판사	
		정영택 외1	지학사	
		우동희 외1	태림출판사	
		조창제	태성	
		신귀복 외1	현대음악출판사	
7차	음악	정영택 외1	교학사	2008
		김성수 외2	대한교과서	
		이홍수 외3	두산	
		이강울 외3	박영사	
		백병동 외4	천재교육	
		서한범 외3	태성	
		고춘선 외1	세광음악출판사	
		윤경미 외1	현대음악출판사	

##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교육 개발원, 한국 교과서 연구재단을 방문하여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복사를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각 교과서에서 국악과 서양음악의 쪽 수를 파악하여 각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교과서에서 국악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쪽 수에서는 목차와 부록은 제외하였다. 쪽 수는 목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쪽 수에는 각각의 활동영역에 대한 학습목표, 학습활동, 학습정리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2) 교과서별로 국악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해,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부분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3) 이해 영역은 목차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4) 가창 영역은 곡 수, 장르, 지역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5) 기악 영역은 단소, 장구, 가야금, 소리북 등 수록된 악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6) 감상영역은 악곡의 수, 장르별, 시대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7) 창작 영역 또한 교육과정 시기별로 변화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 1차 교과서의 경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서가 분리되어 있지만, 1차 이외의 교육 과정기에는 1학년 교과서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차수를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제 1차의 한 출판사 1, 2, 3학년 교과서는 한권으로 합쳐서 분석하였다.

편의상 출판사명은 앞의 두 글자만을 표기하였으며, 동아서적과 동아출판사와 같이 앞의 두 글자가 같은 경우는 동서와 동출로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동일한 교육과정기안에 동일한 출판사가 둘인 세광음악출판사의 경우 저자명의 한글표기순서에 따라 저자가 김준수이면 세A, 오달성이면 세B로 표기하였다. 이 밖에 내용상 분류가 모호하거나 어떠한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본문에서 분류의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모든 전산처리는 EXCEL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제 1차부터 제 7차 교육과정까지의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 안에서 국악의 비중에 대한 분석과 내용영역(이해 · 가창 · 감상 · 기악 · 창작)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국악의 비중

국악의 비중에서는 한 교과서안의 전체쪽수에 대한 국악내용의 비중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분석된 국악내용에 대한 비중을 각 영역별 비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해영역과 활동영역의 분류는 목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목차에서 각 영역의 구분이 없는 경우는 연구자가 임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각 활동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우는 활동영역에 포함시켰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해영역에 포함시켰다.

#### 1) 전체 비중

제 1차 교육과정에서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국악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비율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였으며, 국악의 쪽수를 소수점으로 나타낸 것은 보다 명확한 연구를 위하여 그 내용을 수치로 파악한 결과이다.

연구는 모든 교과서의 세로 길이를 25cm<sup>29)</sup>로 보고 그 중에 내용이 차지하는 부분의 cm를 자로 측정하여 전체 25cm중에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

29) 실제 교과서의 세로 길이는 25.7cm이지만, 편의상 위 · 아래의 여백을 제외한 25cm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가로 길이는 제외하고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 1차 교육과정 창인사 고등음악1

25cm

**결 3부 형식**

작은 3부형식 3개를 겹친것을 결3부 형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3개전부분 3형식으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2부형식 또는 1부형식도 섞어서 쓴다. 그리고 제3부분은 대개 처음부분을 되풀이한다. 3부분 Trio(트리오)라고 해서 조(調)가 A의비금 딸림조로 조바꿈한다. 많은 행진곡들과 「미뉴엘」 「카본」 같은 무도곡들을 들어보자.

$$\begin{matrix} A & + & B & + & A \\ a-b-a & & a-b-a & & a-b-a \end{matrix}$$

**론도 (Rondo) 형식**

악절이 다음과 같은 배열로 된 악곡을 「론도」 형식이라고 한다. 중간악절의 C는 또다시 A-B-A로되어 3부형식의 Trio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기악곡에 독립되어 작곡되고 혹은 소나타의 마지막 악장에 많이 사용된다.

$A-B-A-||C||-A-B-A$

**감상**

도라지처럼...「아리랑」과 같이 널리 알려져있는 이 노래는 강원도 지방에서 생겼으리라고 생각되며 3박자로된 이 곡은 명랑하고도 유쾌한 민요이다. 「도라지」는 못깨야도 사람이 일어지기를 꿈꾸는 산골 소녀의 순정을 노래한 곡이다.

49

16cm

- 26 -

<그림 1>에서와 같이 제 1차 교육과정기의 창인사 고등음악1의 49쪽에는 국악내용이 16cm만큼 나타나고 있다. 국악내용의 세로 길이인 16cm를 교과서 한쪽의 전체 길이인 25cm로 나눈 결과 0.64쪽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교과서의 국악내용이 수록된 쪽수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비율의 오름차순으로 정리하였으며 <표 5>와 같다.

<표 5>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안의 국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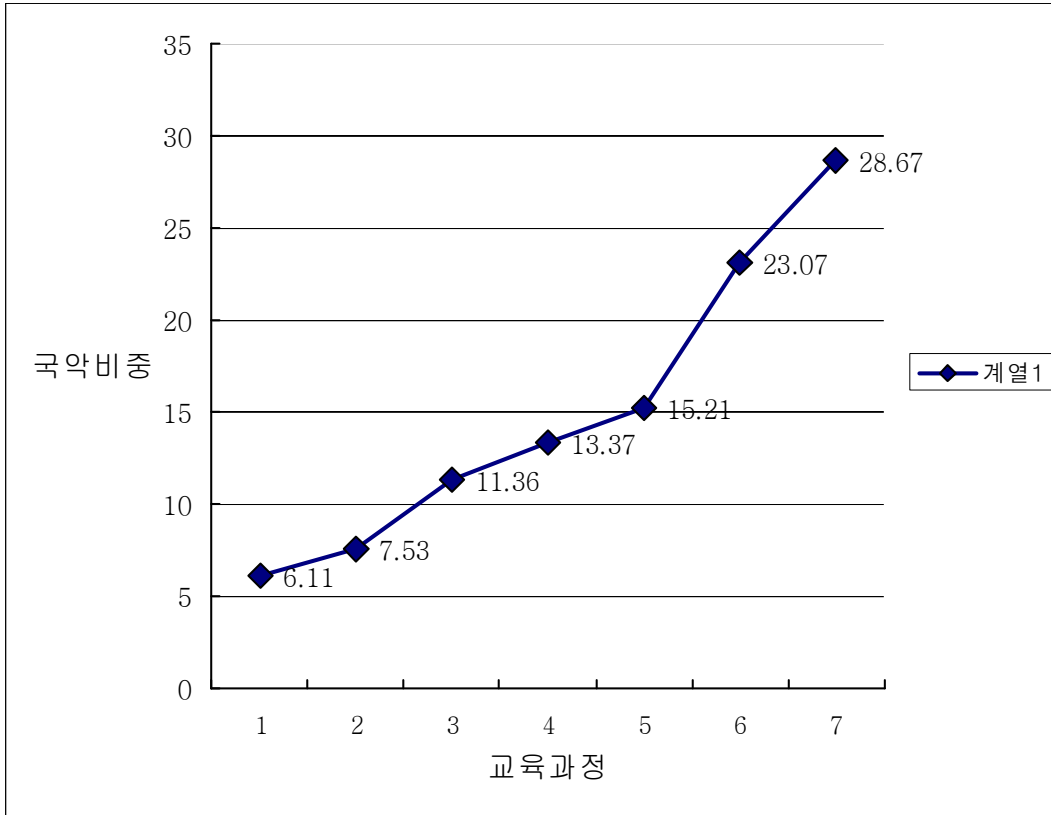
교육과정	출판사명	쪽		비율(%)
		전체	국악	
1	창인 1,2,3	252	3.6	1.43
	한국 상,하	162	9	5.56
	친우 1,2,3	244	27.66	11.34
	평균			6.11
2	동성	148	9	6.08
	현대	145	11.22	7.74
	호악	145	12.7	8.76
	평균			7.53
3	동아	147	12.54	8.53
	국민	150	16.94	11.29
	규문	141	16.3	11.56
	학문	139	17.28	12.43
	교문	147	19.12	13
	평균			11.36
4	삼화	135	15	11.11
	고려	140	16.63	11.96
	태림	143	19.5	13.61
	교학	152	22.42	14.75
	화학	143	22.06	15.43
	평균			13.37
5	학연	151	17	11.26
	현대	152	17.56	11.55
	금성	140	22	15.71
	세B	145	22.13	15.26
	동출	144	20.31	14.11
	동서	141	26.69	18.93
	세A	143	16.59	16.59

	지학	151	27.57	18.26
	평균			15.21
6	법문	173	31.12	17.99
	동아	159	31.5	19.81
	세A	166	33	19.88
	현대	161	34.89	21.67
	보진	165	36.94	22.39
	세B	160	37.3	23.31
	태림	155	40.3	26
	태성	168	45	26.79
	지학	183	54.48	29.77
	평균			23.07
7	두산	151	33.69	23.34
	교학	159	38.49	24.2
	박영	165	43	26.06
	세광	167	44.22	26.48
	태성	170	48.1	28.29
	천재	158	52	32.91
	대한	152	50.88	33.47
	현대	159	55	34.59
		평균		

교과서안의 국악 비중에 대한 분석결과 제 1차 교과서 국악비중의 평균은 6.11%로 가장 낮았고, 제 7차 교과서의 평균은 28.67%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제 7차 교과서의 국악의 비중이 제 1차 교과서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석한 모든 교과서 중에서 제 1차의 창인사 1, 2, 3권의 평균이 1.43%로 가장 낮았으며, 제 7차의 현대음악출판사의 교과서가 34.59%로 가장 높았다.

위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국악 비중의 평균



국악 비중의 평균은 제 1차부터 제 7차까지 꾸준히 증가되었으며 각 차수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 2차 교과서는 제 1차 교과서보다 1.42% 증가하였고 제 3차 3.83%, 제 4차 2.01%, 제 5차 1.84%, 제 6차 7.86%, 제 7차 5.6%로 각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2차 교과서와 제 5차 교과서가 1.42%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 6차 교과서가 7.8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 2) 영역별 비중

국악의 영역별 비중은 이해, 가창, 감상, 기악, 창작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영역은 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국악의 영역별 비중

교육 과정	출판사명	비율(%)				
		이해	가창	감상	기악	창작
1	창인 1,2,3	0	0	100	0	0
	한국 상,하	0	100	0	0	0
	친우 1,2,3	0	79.46	20.54	0	0
	평균	0	59.82	40.18	0	0
2	동성	22.22	44.44	33.33	0	0
	현대	0	41.71	58.29	0	0
	호악	0	57.17	42.83	0	0
	평균	7.41	47.77	44.82	0	0
3	동아	7.97	63.8	23.92	0	4.31
	규문	38.27	34.89	13.62	10.16	3.07
	국민	3.78	58.13	38.09	0	0
	학문	4.79	57.78	29.11	8.32	0
	교문	11.89	61.73	18.27	8.12	0
	평균	13.34	55.27	24.60	5.32	1.48
4	삼화	16.05	77.28	6.67	0	0
	고려	14.84	71.69	8.88	2.31	2.29
	태림	11.22	84.8	0	3.98	0
	교학	16.98	28.64	40.32	9.6	4.46
	화학	17.39	41.86	26.72	11.77	2.27
	평균	15.30	60.85	16.52	5.53	1.80
5	학연	12.89	59.19	19.78	8.15	0
	현대	18.71	45.57	19.96	16.16	0
	금성	10.17	46.1	40.91	2.81	0
	세B	22.78	54.5	18.07	3.23	1.42
	동출	31.47	42.35	14.81	9.84	1.52
	동서	13.31	60.21	22.3	2.23	1.94
	세A	3.03	65.86	26.29	4.82	0
	지학	7.25	51.76	28.46	10.79	1.73
	평균	14.95	53.19	23.82	7.25	0.83
법문	18.21	42.54	25.71	13.53	0	

6	동아	18.36	42.36	26.3	11.52	1.46
	세광A	2.36	65.22	25.35	7.07	0
	현대	14.04	39.57	40.68	5.19	0.52
	보진	9.28	58.16	20.03	9.14	3.39
	세광B	11.13	42.86	30.65	13.11	2.25
	태림	15.59	41.62	29.75	12.23	0.81
	태성	19.6	47.98	21.14	9.97	1.31
	지학	17.96	55.14	18.9	5.14	2.86
	평균	14.06	48.38	26.50	9.66	1.40
7	두산	25.91	33.48	29.8	8.91	1.9
	교학	15.08	30.19	29.86	20.16	4.71
	박영	11.73	40.82	45.13	2.32	0
	세광	21.6	38.73	16.46	15.54	7.67
	태성	32.38	46.31	17.15	4.16	0
	천재	18.65	28.89	41.64	8.9	1.92
	대한	38.92	40.49	8.8	11.79	0
	현대	18.14	23.99	43.89	8.53	5.45
	평균	22.8	35.36	29.09	10.04	2.71
전체평균		12.67	51.52	29.23	5.40	1.17

이해영역을 보면 제 1차와 제 2차의 경우 제 2차의 동성문화사를 제외하고는 이해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제 3차 교과서부터 모든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이해영역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제 7차의 대한교과서이며 국악내용 중에서 약 38.92%가 이해영역으로 전체 평균인 12.67%와 비교했을 때 약 3배 이상 높다. 반대로 이해영역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교과서는 제 6차의 세광음악출판사A로 약 2.36%이다.

가창영역을 보면 제 1차의 창인사만이 가창내용을 수록하지 않고 100% 감상만을 수록하였다. 내용영역 중에서 가창영역의 전체 평균이 51.52%로 가장 높았으며, 제 1차의 한국교과서주식회사는 가창영역의 비중이 100%로 창인사와 달리 국악내용이 가창에만 편중되어 있었다.

감상영역은 가창영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 1차의 한국교과서주식회사, 제 4차의 태림출판사는 감상영역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목차에서 각 영역에 대한 분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임

의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분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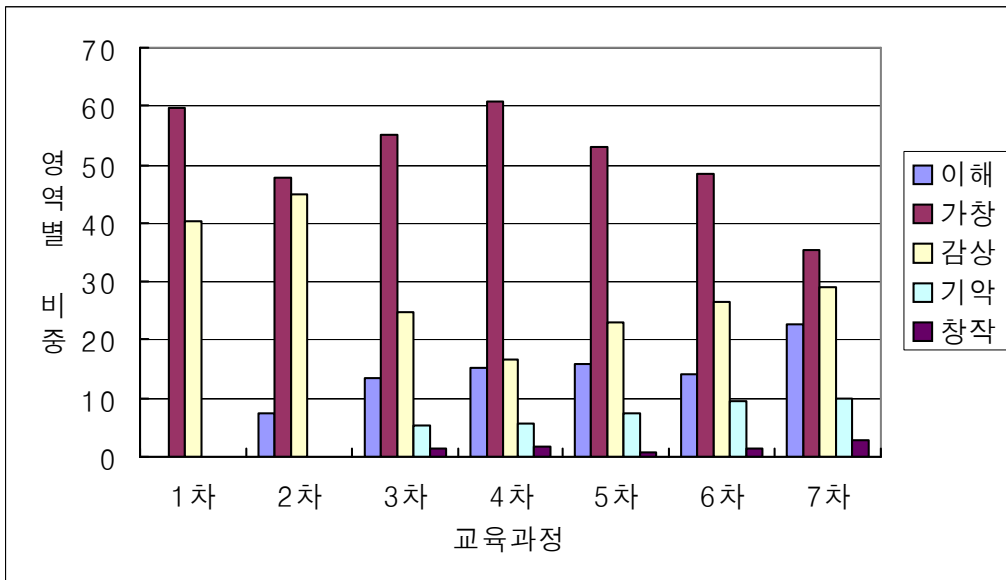
또한 대부분 목차에서 각 영역별 분류는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국악은 영역의 구분이 없이 ‘전통음악’, ‘참고자료’, ‘학습자료’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5영역 중에서도 감상영역과 이해영역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함을 알 수 있다.

기악영역은 제 3차부터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했고, 제 1차와 제 2차에서는 기악영역을 다루고 있지 않았다. 기악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는 제 7차의 교학사로 약 20.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작영역은 전체평균이 약 1.17%로 5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악영역과 마찬가지로 제 3차부터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다른 영역의 경우 제 5차 이후부터는 모든 교과서에 수록된 반면, 창작영역은 제 3차부터 제 7차까지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영역별 비중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국악의 영역별 비중



<그림 3>에서 제 1차는 가창과 감상영역만을 다루고, 제 2차는 이해영역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제 3차에서부터 5영역을 모두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해영역은 제 1차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제 2차부터 제 5차까지 서서히 증가하였다가 6차까지 다소 감소하였고, 제 7차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가창영역은 제 1차와 제 4차에서 비중이 높았고, 제 7차에서 가장 비중이 낮았다. 감상영역은 제 1차와 제 2차에서 가창영역과 더불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제 4차까지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제 5차부터 서서히 증가하였다. 기악영역은 제 3차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제 5차에서 제 7차까지 서서히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작영역은 기악영역과 마찬가지로 제 3차에 처음 등장한 이후 제 4차에서 증가되었다가 제 5차에서 대폭 감소한 후 다시 점차 증가하였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가창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감상, 이해, 기악, 창작영역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안의 국악내용의 증가율이 7.86%로 가장 높았던 제 6차 교과서의 경우 가창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각 영역이 불균형적인 반면, 증가율이 5.6%였던 제 7차 교과서의 경우 기악과 창작영역을 제외한 이해, 가창, 감상영역이 제 6차에 비하여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6차에서는 내용의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제 7차에서는 내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균형 있는 분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 국악 내용 분석

국악 내용 분석에서는 국악내용을 이해영역과 활동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활동영역은 다시 가창, 감상, 기악, 창작 4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제 1차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 내용영역의 체계는 II장의 ‘<표 1> 교육과정 내용 영역 체계의 변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소 변화되어 왔다. 하지만 내용 체계의 기본적인 틀은 이해와 가창, 감상, 기악, 창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내용영역을 이해, 가창, 감상, 기악, 창작 5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이해

이해영역에서는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표에서 내용에 대한 항목은 목차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국악내용 중에서 장단, 음계, 악보, 12율명, 음악사와 같은 부분은 50%이상의 교과서에서 이해영역으로 분류하므로 목차에 각 내용에 대한 명확한 영역 구분이 없는 경우 이해영역에 포함시켰다.

### (1) 제 1차

제 1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음악의 기초이론, 가창, 기악연주, 창작,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체계의 5영역 중에서 음악의 기초이론부분이 이해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제 1차 교육과정안에서 국악내용은 3학년의 음악의 기초이론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제 1차 교과서 3종의 목차를 분석한 결과, 이론에 해당하는 악전과 악식에는 국악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악전과 악식은 서양음악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국악내용은 모두 감상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 (2) 제 2차

제 2차 교육과정은 내용체계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영역으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다. 가창 영역의 '실제 표현에 필요한 악전과 기타 이론의 이해' 항목에서 우리나라 음계에 대한 이론도 제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3종의 교과서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제 2차 교과서의 목차에서는 국악은 대부분 감상영역에서 제시되었으며, 동성문화사의 경우만 악전과 악식 이외에 음악사항목을 따로 두었는데 이 부분을 이해영역에 포함시켰다. 제 2차 교과서에서는 음악사를 국악의 발자취로 표기하고 있으며, 동성문화사는 음악사가 이해영역에 포함되지만, 현대음악출판사와 호악사의 경우 감상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목차에 따른 분석결과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동성문화사만이 이해영역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음악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제 3차

제 3차의 교문사, 국민음악은 목차의 ‘이론’에서 국악내용을 제시하였고 학문사는 ‘참고자료’에서 제시하였다. 규문각과 동아 출판사의 경우 국악내용을 각각 ‘우리나라음악’, ‘그밖의 학습내용’에서 제시하였는데 각 영역에 대한 분류가 분명하지 않다. 제 3차 교과서에서는 5권의 교과서에 모두 이해영역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자세한 분석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제 3차 교과서의 이해영역 내용

출판사명	내용
교문	음악사, 기보법, 선법과 음계, 율명, 장단
국민	우리나라의 음계
규문	악기, 악보, 우리나라의 성악곡, 음악사, 음계, 장단, 종류
동아	국악기의 종류(그림만 제시), 장단
학문	우리나라악기(그림만 제시)

<표 8> 제 3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교문	국민	규문	동아	학문	계
1	음악사	○		○			2
2	율명	○					1
3	음계(선법)	○	○	○			3
4	기보법	○		○			2
5	장단	○		○	○		3
6	국악의 종류			○			1
7	국악기의 종류			○	○	○	3
8	성악곡			○			1
계		5	1	7	2	1	

위의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제 3차 교과서에는 제 2차에 비하여 내용이 다양화되었다. 제 2차 교과서는 음악사만을 다루었다면 제 3차 교과서는 음악사를 비롯하여 율명, 음계, 기보법, 장단, 국악과 국악기의 종류, 우리나라 성악곡에 이르기까지 총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음악사의 내용에 있어서 규문각은 조선시대 이후의 음악에 대해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 악기부분은 기존과 달리 악기를 분류하는 방법만 제시하지 않고 악기를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악기의 그림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종합해 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교문사에서 가장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고, 제 3차 교과서의 이해영역에서는 음계, 장단, 국악기의 종류를 주로 다루고 있다.

#### (4) 제 4차

제 4차 교육과정은 내용체계를 가창, 기악, 창작, 감상 4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지만, 모든 영역의 통합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음악의 기능 학습적 면을 중요시 하여 악전 및 이론 학습이 기능학습과 별개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분명

히 하고 있다.

제 4차 교과서에는 5권의 교과서에 모두 이해영역이 제시되어 있으며 목차에서 ‘관련학습자료’, ‘참고’, ‘국악’, ‘전통음악’, ‘우리나라 음악’, ‘기타’ 등에 제시된 국악내용을 이해영역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자세한 분석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제 4차 교과서의 이해영역 내용

출판사명	내용
고려	장단, 음계, 음악사
교학	삼분손익법, 선법, 음악사
삼화	장단, 음악사, 악기(그림)
태림	악기(그림만), 장단, 음악가, 판소리
화학	장단, 음계, 악보, 악기, 음악사

<표 10> 제 4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고려	교학	삼화	태림	화학	계
1	음악사	○	○	○		○	4
2	율명						0
3	음계(선법)	○	○			○	2
4	기보법					○	1
5	장단	○		○	○	○	4
6	국악의 종류					○	2
7	국악기의 종류			○	○		2
8	성악곡						0
9	판소리				○		1
10	삼분손익법		○				1
11	음악가				○		1
계		3	3	3	4	5	

<표 10>을 보면 제 3차와 비교하여 판소리, 삼분손익법, 음악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반면, 율명과 성악곡은 어떤 교과서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화학사에서 가장 많은 5개 항목을 수록하였으며 11개의 항목 중에서 4권의 교과서가 음악사, 장단을 수록하였다.

(5) 제 5차

제 5차 교육과정은 내용체계를 기본능력과 표현능력으로 구분하였으며,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각 영역의 학습활동 안에서 전통음악을 충분히 다루도록 하였다. 이 때 기본능력인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 중에서 리듬학습의 소재로 전통 음악의 장단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 5차 교과서를 살펴보면 8종의 교과서 중에서 5종의 교과서가 이해영역으로 장단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 내용이 교과서에 잘 반영되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8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이해항목을 구분해 볼 수 있었으며 자세한 분석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제 5차 교과서의 이해영역내용

출판사명	내용
금성	장단, 음악사
동서	장단, 농악, 음악사
동출	장단, 국악의 종류, 악기, 민속악, 가악, 기악곡, 음계, 음악사
세A	장단, 12율명
세B	정간보와 오선보, 농악, 장단, 종류, 음악사
지학	음악사
학연	선법, 성악곡, 음악사
현대	악기, 연주형태, 삼분손익법, 12율, 민속악, 악기종류, 정간보, 국악의 종류

<표 12> 제 5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금성	동서	동출	세A	세B	지학	학연	현대	계
--	----	----	----	----	----	----	----	----	---

1	음악사	○	○	○		○	○	○		6
2	율명				○				○	2
3	음계(선법)			○				○		2
4	기보법					○			○	2
5	장단	○	○	○	○	○				5
6	국악의 종류			○		○			○	3
7	국악기의 종류			○					○	2
8	성악곡			○				○	○	3
9	판소리									0
10	삼분손익법								○	1
11	음악가									0
12	농악		○			○				2
13	민속악			○					○	2
14	기악곡			○						1
15	연주형태								○	1
	계	2	3	8	2	5	1	3	8	

<표 12>를 보면 새로운 항목으로 농악, 민속악, 기악곡, 연주형태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 4차와 마찬가지로 음악사와 장단을 가장 많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제 5차 교과서 8종 중에서 현대 음악출판사와 동아출판사가 8개 항목을 다루고 있어 내용의 다양성을 가진다.

#### (6) 제 6차

제 6차 교육과정은 내용체계가 표현과 감상으로 구분되며, 구체적 내용으로 악곡의 종류와 악기, 연주형태에 따른 음악의 특징에 대한 이해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전통음악은 각 영역에서 적절히 다루어 학습하도록 제시하였다.

<표 13> 제 6차 교과서의 이해영역 내용

출판사명	내용
두산	음악가, 장단, 12율명, 시김새, 기보법, 민요와 사물놀이, 시조와 가곡, 음악사
법문	선법, 민요, 악기의 분류, 국악의 분류, 음악사
보진	삼분손익법, 12율명, 연주형태, 기보법, 국악의 분류, 음악사, 악기의 분류
세광A	12율, 악기의분류(그림)
세광B	시김새, 12율명과 삼분손익법, 악기의 분류, 음악사, 풍물놀이 에 사용되는 악기, 전통관악기, 연주형식
지학	12율, 삼분손익법, 기보법, 악기분류, 음악사상, 음악가, 시김 새, 음악사, 풍물놀이, 민요의 특징, 판소리
태림	음악사, 기보법, 연주 형태, 삼분손익법, 풍물, 음악가, 기악곡, 악기의 분류, 음계, 시김새, 장단, 민요, 천년만세
태성	음악가, 음계, 12율명, 기보법, 악기의 분류, 장단, 삼분손익법, 음악사, 연주형식, 연주형태, 민속악
현대	삼분손익법, 12율명, 기보법, 시김새, 연주형식, 음악가, 국악의 분류, 악기의 분류

<표 14> 제 6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두 산	법 문	보 진	세A	세B	지 학	태 림	태 성	현 대	계
1	음악사	○		○		○	○	○	○	○	7
2	율명	○		○	○	○	○		○	○	7
3	음계 (선법)		○					○	○		3
4	기보법	○		○			○	○	○	○	6
5	장단	○						○	○		3
6	국악의 종류		○	○					○	○	4
7	국악기의 종류		○	○	○	○	○	○		○	7
8	성악곡	○									1
9	판소리						○				1

10	삼분손익법			○		○	○	○	○	○	6
11	음악가	○					○	○	○	○	5
12	농악										0
13	민속악	○	○			○	○	○	○		6
14	기악곡							○			1
15	연주형태			○				○	○		3
16	아악							○			1
17	시김새	○			○		○	○		○	5
18	연주형식					○			○	○	3
19	기타 (음악사상)						○				1
계		8	4	7	3	6	10	12	10	9	

<표 14>를 보면 태림출판사가 가장 많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광출판사A가 가장 적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개의 항목 중에서 음악사, 율명, 악기의 분류에 대해서 8종의 교과서 중에서 7종의 교과서가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항목으로 아악, 시김새, 연주형식이 제시되었으며, 지학사에서는 특별히 음악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 교육과정에 걸쳐 유일하게 지학사에서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기타항목에 포함시켰다. 또한 제 6차 교과서에서는 농악에 대한 제시가 없었다.

### (7) 제 7차

제 7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이해, 표현, 감상으로 구성되며, 교과서의 목차에는 각 영역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표 15> 제 7차 교과서의 이해영역 내용

출판사명	내용
교학	율명, 기보법, 민속악(잡가), 연주형식, 음악가, 음악사
대한	율명, 악기, 음악사, 민속악, 세종대왕의 업적, 창극, 한국의

	놀이와 음악, 무용과 음악
두산	장단, 12율명, 음계, 기보법, 국악의 분류, 시김새, 민속악, 음악사
박영	민속악, 가악, 악기, 음악사, 음계, 12율명
세광	기보법, 시김새, 연주 형식, 음악가, 민속악, 악기, 음악사
천재	음악사, 12율명, 기보법, 민속악, 기악곡, 악기, 가악
태성	민속악, 음계, 연주형태, 기보법, 가악, 국악의 분류, 음악사, 국립국악원/국악관현악단
현대	12율명, 기보법, 악기의 분류, 연주형식, 음계

<표 16> 제 7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교학	대한	두산	박영	세광	천재	태성	현대	계
1	음악사	○	○	○	○	○	○	○	○	8
2	율명	○	○	○	○		○		○	6
3	음계(선법)			○	○			○	○	4
4	기보법			○		○	○	○	○	5
5	장단			○						1
6	국악의 종류			○				○		2
7	국악기의 종류		○		○	○	○		○	5
8	성악곡				○		○	○		3
9	판소리		○							1
10	삼분손익법									0
11	음악가	○				○				2
12	농악									0
13	민속악	○	○	○	○	○	○	○		7
14	기악곡						○			1
15	연주형태							○		1
16	아악									0
17	시김새			○		○				2
18	연주형식	○				○			○	3
19	기타		○					○		2
	계	5	6	8	6	7	7	8	6	

<표 16>을 보면 제 6차에 이어 새롭게 추가로 제시된 항목은 없지만 기타

항목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나타났다. 두산은 세종대왕의 업적, 한국의 놀이와 음악, 무용과 음악을 제시하였으며, 태성은 국립국악원과 국악관현악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 7차에서는 항목이 19개가 제시되었지만 이전의 교과서들에서 이해항목으로 분류되었던 삼분손익법, 농악, 아악과 같은 내용들을 제 7차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항목수에 비하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은 매우 적다. 항목 중에서 음악사를 8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으며 뒤이어 민속악과 율명을 다루고 있다.

#### (8) 제 1차 ~ 제 7차

제 1차부터 제 7차까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이해영역을 분석해본 결과는 <표 17>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해영역에 대한 내용은 제 1차를 제외하고, 제 2차부터 제 7차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차에서는 음악사만 제시되었다면, 제 6차에서는 음악사를 포함한 총 18가지 항목이 제시되고 제 7차에서는 총 15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해영역의 내용 중에서는 음악사가 총 27권의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었고, 아악을 이해영역에 제시한 교과서는 2권, 의식음악을 다룬 교과서는 단 1권 뿐이었다. 이는 아악과 의식음악의 경우 주로 감상영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이해영역은 제 3차 교육과정에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있었으며, 제 7차 보다는 제 6차에서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표 17>을 보면 제 6차 교과서에서 제 7차에서는 다루지 않는 삼분손익법을 5권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악기의 분류, 국악의 분류도 더 많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기별로 교과서의 권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수별로 내용의 많고 적

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표 17> 제 1차 ~ 제 7차 교과서의 내용 분류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1	음악사	·	1	2	4	6	6	8	27
2	울명	·	·	1	·	2	7	6	10
3	음계(선법)	·	·	3	2	1	3	4	9
4	기보법	·	·	2	1	2	6	5	11
5	장단	·	·	3	4	5	3	1	15
6	국악의 종류	·	·	1	2	2	4	2	9
7	국악기의 종류	·	·	3	2	3	7	5	15
8	성악곡	·	·	1	2	4	1	3	8
9	판소리	·	·	1	2	·	1	1	5
10	삼분손익법	·	·	·	1	1	6	·	8
11	음악가	·	·	·	1	·	5	2	6
12	농악	·	·	1	1	2	·	·	4
13	민속악	·	·	·	·	3	6	7	9
14	기악곡	·	·	·	1	·	1	1	2
15	연주형태	·	·	·	·	1	3	1	4
16	아악	·	·	·	·	1	1	·	2
17	시김새	·	·	·	·	·	5	2	5
18	연주형식	·	·	·	·	·	3	3	3
19	기타	·	·	·	·	·	1	2	1
항목의 계		0	1	11	13	14	18	15	

<표 17>을 보면 이해영역 중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 가장 많이 수록된 항목은 음악사이다. 따라서 음악사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음악사의 내용변화

교육 과정	출판 사명	단원명	학습 목표	시대구분	쪽
2	동성	국악의 발자취	-	고대, 삼한, 삼국, 고려, 조선	2
3	교문	국악의 발자취	-	고대, 삼국, 고려, 조선	1
	규문	우리나라 음악의 발자취	-	삼국이전,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2
4	고려	전통음악의 발달	-	삼국, 고려, 이조, 근대	2
	교학	우리나라의 음악약사	-	상고,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8·15이후	2
	삼화	국악사	-	고대, 삼국, 고려, 조선	1
	화학	우리나라 음악의 발자취	-	삼국이전,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2
5	금성	한국전통음악사	-	고대, 삼국, 고려, 조선, 근세	2
	동서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발달	-	상고, 삼국, 고려, 조선, 8·15이후	2
	동출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	-	삼국이전, 삼국, 고려, 조선, 근대·현대	1
	세B	한국음악사	-	고대, 삼국,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현대	0.6
	지학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	-	상고,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광복이후	2
	학연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흐름	-	상고, 삼한, 삼국, 고려, 조선, 근세	2
6	동아	우리나라 음악	-	상고, 삼국, 고려, 조선, 광복이후	2
	보진	우리나라 음악사	-	삼국이전, 삼국, 고려, 조선, 근대·현대	1
	세B	우리나라 음악사	-	상고,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현대	2
	지학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역사	-	상고,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광복이후	4
	태림	음악사	○	통일신라, 고려, 조선전기,	3

				조선후기, 근대·현대	
	태성	우리나라음악사	-	상고, 삼국,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건국이후	3
7	교학	음악사	○	상고,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근대(갑오경장~해방이전), 광복이후	3
	대한	한국음악사	-	고려이전,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대·현대	4.5
	두산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	○	고대이전, 고대(삼국), 중세(고려), 근세(조선전기), 근대(조선후기), 현대	4
	박영	한국음악의 역사	○	고대이전, 고대(삼국), 통일신라, 중세(고려), 근세(조선전기), 근대(조선후기), 현대(해방이후)	3
	세광	우리나라음악사	○	상고, 삼국, 고려, 조선, 근대·현대	2
	천재	그림과 함께 하는 우리음악사	-	상고, 삼국~통일신라, 조선전기, 조선후기~일제강점기, 고려시대	5
	태성	한국음악사	-	상고, 삼국, 고려, 조선, 광복이후	3
	현대	국악사	-	상고, 삼국, 통일, 고려, 조선, 근대·현대	2

<표 18>을 보면 교육과정기와 상관없이 모든 교과서가 각기 다른 단원명과 시대구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사라는 단원명을 처음 사용한 것은 제 5차 금성출판사와 세광음악출판사이며, 그 이전에는 국악의 발자취, 전통음악의 발달, 국악사, 음악약사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 제 6차에서는 지학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음악사를 단원명으로 사용하였으며, 제 7차에서는 박영사와 두산교과서가 음악의 역사로 표시하였다.

단원명의 변화를 통하여 국악, 전통음악, 우리나라음악, 한국음악과 같은 용

어들이 제 7차 교육과정까지도 통합되지 않은 채 각각 다른 용어로 사용되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음악사의 시대구분 또한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 교과서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내고 있어 용어와 음악사에 대한 시대구분의 통합이 각각 필요하다.

시대구분에 있어서는 제 2차는 조선 시대까지만을 다루었고, 제 3차에서부터 조선시대 이후의 음악을 수록하였다. 제 4차의 고려서적의 경우 유일하게 조선시대를 이조시대로 제시하였으며, 조선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제시한 것은 제 5차의 세광음악출판사이다.

통일신라시대를 따로 구분하여 나타낸 경우는 제 4차의 교학사, 제 5차의 지학사, 제 6차의 세광음악출판사, 지학사, 태림, 제 7차의 박영사, 천재, 현대 8종에 불과하다.

제 7차의 두산출판사과 박영사는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시대를 고대(삼국), 중세(고려), 근세(조선전기), 근대(조선후기), 현대(광복이후)로 구분하였다. 제 5차의 금성출판사는 조선시대를 1392년부터 1910년으로, 근세는 1885년 이후로 구분하였는데 근세, 근대, 현대 음악을 통틀어 근세로 수록하였다.

이해영역에서 학습목표는 제 6차의 태림출판사에서부터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제 7차에서는 교학사, 두산, 박영사, 세광음악출판사 4종의 교과서가 학습목표를 제시하였다.

음악사는 대체로 1~4쪽에 수록이 되며, 제 5차의 세광음악출판사는 1쪽이 되지 않아 가장 내용이 적게 수록되었다. 반대로 제 7차의 천재교육은 음악사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 가장 적은 세광음악출판사의 교과서 내용을 소개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제 5차 세광음악출판사의 음악사 내용

고 대	집단적인 제천 의식과 향연... 고구려(동맹), 예(무천), 부여(영고), 마한(5월과 10월). 진한과 변한(현악기와 악곡이 있었음).
삼국 시대	고구려... 중국과의 문화 교류. 거문고 제작(왕산악). 무용 음악 발달 - 중국에 진출. 백 제... 노래(「정음사」), 악기(고, 각, 공후, 쟁, 우, 지, 적), 무용 발달. 일본에 악 인 파견(고이왕 때). 신 라... 거문고의 계승 발전(육보고-속명득-귀금-안장-극중), 백결(「방아타 령」). 가야금의 계승 발전(우륵-법지, 계고, 만덕). 음성서 펴냄 - 악공 양성. 당악 도입(664년). 불교 음악(범패).
고려 시대	통일 신라의 음악을 계승. 송나라로부터 대성아악(신악기와 악곡) 도입(1116년). 아악(중국의 대성아악), 당악(중국의 속악), 향악(신라 때부터 전해진 우리 민족 고 유의 음악)으로 분류되기 시작.
조선 시대 전 기	아악서와 전악서 설치(태조 원년). 세종-악기도감 설치(편경, 편종 제작), 정간 보 창안, 「정대업」과 「보태평」 작곡. 박연-아악 정리, 맹사성-향악 정리, 성현 -악학궤범 편찬(1493년).
조선 시대 후 기	당악의 향악화(보허자, 낙양춘). 향악의 발전(영산회상, 정음). 민속악의 대두(판 소리, 12잡가, 시나위, 산조). 가곡, 가사, 시조의 확립. 대악전보, 대악후보 발간. 서양 음악 전래.
현 대	국립 국악원 설립. 국악사 양성소-국악 고등학교. 각 대학의 국악과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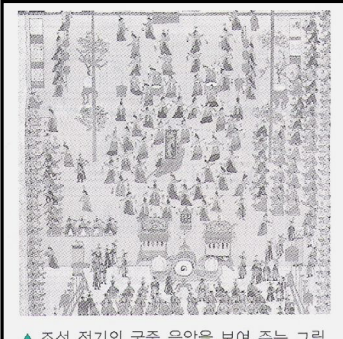
<그림 4>에서 제 5차의 세광음악출판사는 음악사의 내용을 간략히 약술하여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가장 많은 내용을 수록한 천재교육은 <그림 5>와 같이 단원명을 ‘그림과 함께 하는 우리 음악사’로 제시하여 시대를 5시대로 나누어 한 시대마다 한 쪽 정도의 분량으로 음악사를 수록하였다.

<그림 5> 제 7차 천재교육의 음악사 내용

### 그림과 함께 하는 우리 음악사- 조선 전기

**조선 전기 음악** -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조선 전기에는 불교 억제 정책으로 연등회와 같은 불교 관련 행사가 폐지되고, 아악이 새롭게 변화되었으며, 건국 대업을 칭송하기 위한 많은 새로운 곡이 창작되었고, 이를 잘 보존하기 위하여 『악학궤범』과 같은 악서가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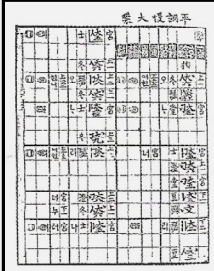


▲ 조선 전기의 궁중 음악을 보여주는 그림

**아 악** 조선 초기에는 대개 고려 시대의 아악을 답습하였지만, 세종 때 제향에서 연주되던 향악 교주 전통이 폐기되고, 아악 연주로 일관되도록 고쳐졌다. 또한, 박연 등에 의해 새롭게 제정된 아악곡이 『악학보』에 실리는 등 아악 역사의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세종 때에는 율관 및 편경의 제작과 함께 아악 제작이 이루어졌다.

**당 악** 조선 전기에는 고려조의 당악, 즉 송악(宋樂)이 그대로 답습되었다. 『고려서』 악지 당악정제의 〈현선도〉·〈수연장〉·〈오양선〉·〈포구락〉·〈연화대〉는 조선 시대 『악학궤범』의 당악정제에 계승되었고, 그 밖에 당악정제의 양식을 따서 창작된 〈금척〉·〈수보록〉·〈근천정〉·〈수명명〉 등이 『악학궤범』의 당악정제에 첨가되었다.

**향 악** 조선 전기에는 대부분 고려 시대의 향악을 계승하였고, 『대악후보』, 『시용향악보』 및 『금합자보』에 기보되었다. 조선 전기 향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금합자보』의 평조 〈만대엽〉이다. 세종 대왕은 조정의 공덕과 조선 건국의 위업을 좀더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용비어천가를 가사로 하여 연주하는 〈봉래의〉를 비롯하여 〈발상〉·〈보태평〉·〈정대엽〉 등의 신악을 새로 창작하였다. 또, 정간보의 창안으로 많은 신악이 악보화되었다.



▲ 평조 만대엽 악보

❖ 다음의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주제

- 세종 대왕이 우리 음악사에 미친 영향과 그 업적
-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의 당악과 향악의 발전과 변화 비교

조사 보고서				
조사자	학년 :	반 :	번 :	이름 :
주 제				
조사 방법 및 자료 출처				
조사 결과				
느낀 점				

제 5차의 세광음악출판사는 구체적인 학습목표나 활동이 제시하지 않은 반면, 제 7차의 천재교육은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부분에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전기에는 <그림 5>와 같이 보고서 작성하기를 제시하였고, 조선 후

기 이후에서는 ‘조선전기와 조선 후기의 음악 문화를 비교하여 발표해 보자.’를 제시하였다.

## 2) 가창

가창영역에서는 국악 가창곡의 수와 가창곡의 종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된 가창곡은 단원의 중심이 되는 제재곡을 비롯하여 참고곡까지 모두 포함하였다. 가창곡의 종류가 새롭게 나타난 부분은 표에서 진하게 표시하였으며 가창곡의 평균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다.

### (1) 제 1차

제 1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제 1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출판사명	곡 명	곡수
한국	봄이왔네, 진도아리랑, 오봉산타령, 몽금포타령	4
친우	베를노래, 농부가, 진도아리랑, 노들강변, 오봉산타령, 봄이왔네, 몽금포 타령, 천안삼거리, 풍년가	9
평균		7

제 1차 교과서는 가창부분에 있어서도 국악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한교과서에 수록된 가창곡은 4곡에서 9곡으로 매우 적었다. 가창곡의 종류는 민요로 한정 되어있으며, 제 1차 교과서 3종중에서 2종의 교과서만이 가창곡을 수록하였다. 가창곡은 평균 7곡이 수록되었다.

(2) 제 2차

제 2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제 2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출판사명	곡 명	곡수
현대	베틀노래, 오봉산타령, 노들강변	3
동성	베틀노래, 오봉산타령, 노들강변	3
호악	오봉산타령, 새타령, 아리랑, 베틀노래, 한오백년, 도라지타령, 봄이왔네	7
평균		4

제 2차 교과서는 제 1차 교과서에 비해서 가창곡의 수가 더 적고, 3곡에서 7곡까지의 가창곡이 수록되어 있다. 제 1차와 마찬가지로 민요만 수록되어 있으며, 제 2차 교과서 3종에 평균 4곡이 수록되었다.

(3) 제 3차

제 3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제 3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출판사명	곡 명	곡수
교문	경복궁 타령, 밀양아리랑, 한오백년, 옹해야, 베틀노래, 농부가, 풍년가, 매화타령, 새타령, 오봉산타령, 울산아가씨	11
규문	오돌또기, 천안삼거리, 뱃노래, 농부가, 강원도아리랑, 보리타작소리, 한강수타령	7
국민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베틀노래, 매화타령, 새타령, 풍년가, 농부가, 울산아가씨, 평시조(태산이 높다하되),	10

	몽금포 타령	
동아	신고산타령, 한강수타령, 밀양아리랑, 베들노래, 한오백년, 널리리야, 몽금포 타령, 박연폭포, 진도아리랑, 울산아가씨	10
학문	타령, 베들노래, 울산아가씨, 오봉산타령, <b>평시조(청산리벽계수야)</b> , <b>임금님 행차</b> , 거문도벚노래, 임실방아타령, 정선아리랑, 어화곶실대허리야, 서마 둥글려라, 자진절로소리, 모심기 노래)	13
평균		10

제 3차 교과서는 7곡에서 14곡에까지 가창곡이 10곡 이상 수록되기 시작하였으며, 가창곡 수에 있어서 확실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요 이외에도, 영산회상 중 ‘타령’, 평시조인 ‘태산이 높다하되’와 ‘청산리벽계수야’, 취타 중에서 ‘임금님 행차’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곡들이 수록되었다. 민요로 한정되어 있던 가창곡의 종류가 아악, 가악 등의 등장으로 매우 다양화되었다. 제 3차 교과서 5종에 가창곡은 평균 10곡이 수록되었다.

#### (4) 제 4차

제 4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제 4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출판사명	곡 명	곡수
고려	봄이왔네, 새타령, 밀양아리랑, 농부가, 진도아리랑, 보리타작노래, 몽금포 타령, 울산아가씨	8
교학	새타령, 울산아가씨, 뱃노래, 위도 띄 뱃노래, 옹헤야, 한강수 타령	6
삼화	몽금포타령, 울산아가씨, 박연폭포, 베틀노래, 오봉산타령, 널리리야	6
태림	강원도 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박연폭포, 울산아가씨, 신고산타령, 몽금포타령, 농부가, 새야새야, 파랑새야	9
화학	강원도 아리랑, 오돌또기, 박연폭포, 옹헤야, 매화타령, 농부가, 울산아가씨	7
평균		7

제 4차 교과서는 제 3차 교과서에 비해서 가창곡수가 감소하였으며, 제 1차 교과서나 제 2차 교과서와 같이 적은 양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수록곡에 있어서도 제 3차에서는 민요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곡을 수록했던 반면, 다시 제 1차, 제 2차와 마찬가지로 민요만을 수록하였다. 교과서 안에서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 3차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양적인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질적인 면은 오히려 더 저하되고 있다. 제 4차 교과서 5종에 수록된 가창곡은 평균 7곡으로, 3차의 10곡보다 적다.

#### (5) 제 5차

제 5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 제 5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출판사명	곡 명	곡수
금성	봄이 왔네, 강원도 아리랑, 농부가, 박연폭포, 몽금포 타령, <b>평시조(태산이 높다하되)</b>	6
동서	봄이 왔네, 농부가, 박연폭포, 몽금포 타령, 울산 아가씨, 오돌또기, 강원도 아리랑, 새야새야 파랑새야, 꿩지나 칭칭 나네	9
동출	강원도 아리랑, 농부가, 옹혜야, 오돌또기, 박연폭포, 임실방아타령, 정선아리랑, 모심기노래, 거문도 뱃노래	9
세A	옹혜야, 박연폭포, 강원도 아리랑, 매화타령, 봄이 왔네, 울산아가씨, 농부가, 한강수 타령, 몽금포 타령	9
세B	몽금포 타령, 늘리리야, 농부가, 풍년가, 박연폭포, 울산 아가씨, 새야새야, 옹혜야	8
지학	봄이왔네, 농부가, 몽금포 타령, 울산아가씨, <b>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b> , 꿩지나칭칭나네, 경북궁 타령, 오돌또기, 박연폭포, 강원도 아리랑, 신고산타령	11
학연	봄이왔네, 새타령, 박연폭포, 신고산 타령, 울산아가씨, 늘리리야, 옹혜야	7
현대	양산도, 타령, 울산 아가씨, <b>임금님의 행차</b> , 몽금포 타령, 새타령, 농부가, 박연 폭포, <b>동창이 밝았느냐</b> , 옹혜야	10
평균		8

제 5차 교과서의 가창곡 수는 4차 교과서보다 증가하여 10곡 이상 수록된 교과서가 2종이 있으며, 8종의 교과서에는 6곡에서 11곡까지의 가창곡이 수록되었다. 가창곡이 증가된 만큼 종류도 다시 다양화되어 민요 이외에 취타, 시조와 같은 가창곡이 제시되었다. 제 5차 교과서 총 8종에 수록된 가창곡은 평균 8곡이다.

#### (6) 제 6차

제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제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출판사명	곡 명	곡수
두산	봄이 왔네, 농부가, 오돌또기, 강원도 아리랑, 사모곡, 강강술래, 배치기, <b>동창이 밝았느냐, 우조 초수대엽</b> , 울산아가씨	10
법문	몽금포타령, 봄이 왔네, 박연폭포, 울산아가씨, 오돌또기, 새타령, 옹혜야, 강강술래, 낙양춘	9
보진	뱃노래 <sup>30)</sup> , 정선 아리랑, 수심가, 자진 농부가, 경북궁 타령, <b>태산이 높다하되</b> , 박연 폭포, 매화타령, 울산 아가씨, 입실 방아 타령, 오돌또기, 강강술래, 위도 띄 뱃노래, <b>우조 초수대엽</b>	14
세광A	봄이왔네, 상주 모심기 노래, 박연폭포, 오돌또기, 강원도 아리랑, 농부가, 정선아리랑, 매화타령, <b>태산이 높다하되</b> , 울산아가씨, 경북궁 타령, 신몽금포 타령, 밀양아리랑, 방아타령	14
세광B	박연폭포, 강원도 아리랑, 탑돌이, 농부가, 물레타령, 오돌또기, 이야홍 타령, 몽금포 타령, 한강수 타령, 널리리야, 옹혜야, 신고산타령, 상주아리랑, 울산아가씨	14
지학	봄이 왔네, 노들강변, 박연폭포, 농부가, 새타령, 천안삼거리, 옹혜야, 뱃노래(경상도), 정선아리랑, 뱃노래(전라도), 풍년가, 강강술래, <b>평시조(동창이 밝았느냐)</b> , 사랑가, 쾌지나 칭칭나네, 강원도 아리랑, 울산 아가씨, 신고산 타령, 몽금포 타령, 총각 타령, 한강수 타령, 이야홍 타령	22
태림	봄이왔네, 타령, 옹혜야, 긴 아리랑, 총각 타령, 박연폭포, <b>임금님의 행차</b> , 방아타령, <b>동창이 밝았느냐</b> , 농부가, 신고산 타령, 강원도 아리랑	13
태성	봄이왔네, 경북궁 타령, 농부가, 울산아가씨, 박연폭포, 정선아리랑, 새타령, 강원도 아리랑, 오돌또기, 몽금포 타령, 입실방아타령, 한강수 타령	12
현대	경북궁 타령, <b>임금님의 행차</b> , 양산도, 박연폭포, 강원도 아리랑, 농부가, 새타령, <b>태산이 높다하되</b> , 울산아가씨	9

제 6차에서는 9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곡이 8에서 22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10곡 이상이 수록된 교과서는 6종, 20곡이상이 수록된 교과서는 지학사 1종이다. 가창곡의 종류도 시조부분에서 ‘태산이 높다 하되’, ‘동창이 밝았으나’ 이외에 ‘우조초수대엽’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또한 제 3차에 새롭게 등장하여 제 5차에도 수록된 바 있는 시조, 영산회상 중 ‘타령’, 취타 중 ‘임금님의 행차’가 꾸준히 제시되었으며 제 6차에서는 판소리가 새로운 장르로 추가되었다. 제 6차 교과서 9종에 수록된 가창곡은 평균 13곡이다.

(7) 제 7차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가창내용

출판사명	곡 명	곡수
교학	박연폭포, 천안 삼거리, 농부가, 천자 뒤풀이, 동창이 밝았느냐, 뱃노래(경상도), 강원도 아리랑, 이야홍 타령, 신고산 타령, 사랑가, 상주 모심기 소리	11
대한	봄이왔네, 동창이 밝았느냐, 박연폭포, 새타령, 가곡 우조초수대엽, 경북궁 타령, 농부가, 정선 아라리, 신고산 타령, 강원도 아리랑, 오돌또기, 임금님의 행차, 정간보 읽기와 노래하기	12
두산	봄이왔네, 경북궁 타령, 오돌또기, 새타령, 박연폭포, 낙양춘, 농부가, 양산도, 정선아리랑	10
박영	오돌또기, 꿩지나 칭칭 나네, 치기나 칭칭, 상사도야-고양김매는 소리, 새타령, 강강술래, 신고산 타령, 자진방아타령, 방아타령	9

30) 보진재의 뱃노래와 지학사의 뱃노래는 제목만 같고 멜로디와 가사는 다르다.

세광	타령, 구 아리랑, 새타령, 박연폭포, 뱃노래(경상도), 한강수 타령, 신 천안 삼거리, 신고산 타령, 해주아리랑, 사랑가, 강원도 아리랑, 탑돌이, 오돌또기, 해녀가	14
천재	육자배기, 곰보타령, 영산홍, 서우젯소리, 긴아리랑, 청산별곡, 수심가, 엮음수심가, 적성가, 호남가	10
태성	뱃노래(동부민요), 새타령, 옹헤야, 울산아가씨, 범피중류, '우락'(여창가곡), 박연폭포, 수심가, 엮음 수심가, 오돌또기	10
현대	신고산타령, 풍구소리, 봉산 풍구타령, 울산 쇠부리 노래, 타령, 정선아라리, 고성자진아라리, 장백의 새 아리랑, 강강술래, 자진 강강술래, 상주모심기소리, 강화 시선 뱃노래, 어부사시사(창작국악곡), 사랑가, 화초장, 서우젯소리, 오돌또기, 나무타령, 등당애타령, 경주 꽃노래, 니리구얼싸	21
평균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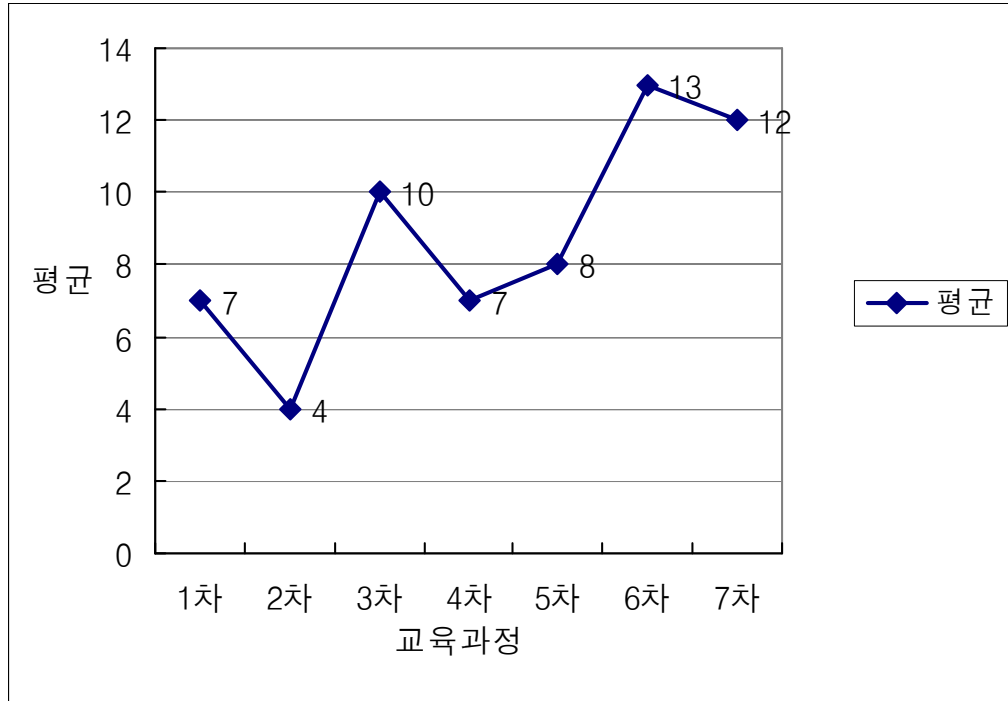
제 7차 교과서는 가창곡수가 10에서 21으로 8종의 모든 교과서가 10곡 이상의 가창곡을 수록하고 있다. 가창곡의 종류로는 민요, 시조, 타령, 판소리 외에 당악, 여창가곡, 창작국악곡이 새롭게 나타났다. 제 6차에서는 판소리곡이 '사랑가' 한곡이었는데 제 7차에서는 '천자뒤풀이', '범피중류', '화초장'과 같은 새로운 곡이 제시되었다. 그밖에도 당악인 '낙양춘'과 여창가곡인 '우락', 창작국악곡인 '어부사시사'가 새롭게 나타났다. 또한 '정간보 읽기와 노래하기'를 통하여 정간보로 제시된 국악을 보다 편하게 익히고 노래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8) 제 1차~ 제 7차

### ① 가창곡의 수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 교과서에 수록된 가창곡 수의 평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가창곡 수의 평균



<그림 6>을 보면 가창곡 수가 제 1차, 제 3차, 제 6차는 증가하였고 반대로 제 2차, 제 4차, 제 7차에서는 감소하는 등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6차에서부터 다시 가창곡 수가 증가된 것은 제 6차에서부터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창곡의 수가 제 1차에는 7곡, 제 7차에는 12곡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그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악교육이 가창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영역별 비중의 균형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② 가창곡의 종류

가창영역 분석결과 가창곡수의 변화 이외에도 가창곡 종류의 변화도 알 수 있었다. 가창곡 종류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가창곡 종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민요	○	○	○	○	○	○	○
평시조			○		○	○	○
취타			○		○	○	○
아악			○			○	○
판소리						○	○
여창가곡							○
고려가요							○
창작국악곡							○
잡가							○
당악							○

<표 26>을 보면 민요는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 지속적으로 수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제 1차, 제 2차, 제 4차는 민요만 수록되었고, 제 3차에는 시조, 취타, 영산회상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제 6차에서는 판소리가 등장하였고, 제 7차에서는 가창곡의 종류가 더욱 증가하여 가장 다양한 가창곡을 수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6차 교과서가 가창곡 수의 평균은 높지만 제 7차 교과서가 곡의 종류는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조의 경우 제 3차에는 ‘태산이 높다하되’와 ‘동창이 밝았느냐’ 2곡만 제시되었고, 제 5차에서는 새로운 곡인 ‘청산리 벽계수야’가 나타났다. 또 제 6차에서는 ‘우조초수대엽’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판소리의 경우 제 6차에 ‘사랑가’ 한곡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제 7차에서는 ‘천자뒤풀이’, ‘범피중류’, ‘화초장’과 같은 곡들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창곡의 종류의 변화는 <그림 6>가창곡 수의 평균 변화와 유사

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창곡 수가 급격히 증가한 제 3차 교과서에 다양한 가창곡이 수록되었고, 가창곡 수가 감소한 제 4차에서는 가창곡의 종류가 민요 하나였다. 다시 가창곡 수가 증가한 제 5차에서부터 점차 가창곡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창곡의 장르에 따른 곡명과 빈도수를 분석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가창곡의 종류에 따른 분류

장르		곡명	빈도수
민요	강원	한오백년	3
		강원도아리랑	19
		정선아리랑	7
		영산홍, 정선아라리, 고성자진아라리	1
	경기	봄이왔네	15
		오봉산타령	8
		베들노래	9
		노들강변	4
		풍년가	5
		아리랑	1
		도라지타령	1
		경복궁타령	8
		매화타령	5
		한강수타령	7
		닐리리야	5
		양산도타령	3
		탑돌이	2
		뱃노래, 긴아리랑상사도야,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구아리랑, 강화시선뱃노래, 나무타령	1
	경상	밀양아리랑	5
		옹헤야	14
		울산아가씨	23
		모심기노래	5
		쾌지나칭칭나네	4
		뱃노래	2
		상주아리랑, 치기나칭칭, 울산쇠부리노래, 경	1

		주꽃노래	
	전라	농부가	23
		진도아리랑	5
		새타령	14
		거문도뱃노래	2
		임실방아타령	4
		서마등글러라	1
		자진절로소리	1
		강강술래	6
		육자배기	2
			자진농부가, 위도띠뱃노래, 물레타령, 뱃노래, 방아타령, 자진강강술래, 등당애타령
	제주	오돌또기	16
		이야홍타령	4
		해너가, 서우젯소리	1
	충청	천안삼거리	4
		어화급실대허리야	1
		충각타령	2
	함경	신고산타령	12
	황해	몽금포타령	18
		봉산풍구타령	14
		신몽금포타령, 풍구소리, 니리구얼싸	1
	기타	박연폭포	23
		새야새야 과랑새야	3
		뱃노래	4
		수심가	2
		억음수심가	1
		배치기	1
	관소리	사랑가	4
		천자뒤풀이	1
		범피중류	1
		화초장	1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5
		동창이 밝았느냐	7
		청산리 벽계수야	1
	취타	임금님 행차	5
	아악	‘영산회상’ 중 타령	4
	잡가	곰보타령	1
	신민요	신천안삼거리	1
	여창가곡	우락	1

창작국악곡	어부사시사	1
-------	-------	---

<표 27>을 보면 가창곡 장르 중에서 가창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곡은 민요이며 평시조, 판소리, 취타, 아악이 민요 다음으로 많이 수록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민요 중에서는 경기 민요가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경기 민요 중에서도 ‘봄이 왔네’의 빈도수가 1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전체 민요곡 중에서는 전라도 민요인 ‘농부가’와 경상도민요인 ‘울산아가씨’의 빈도수가 23으로 가장 높았다. 판소리 중에서는 ‘사랑가’가 교과서에 수록된 4곡의 판소리 곡 중에서 빈도수 4로 가장 높았고, 평시조 중에서는 3곡의 평시조 곡 중에서 ‘동창이 밝았느냐’가 빈도수 7로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가창곡의 장르 중 제 1차부터 제 7차까지 모든 교과서에 수록된 장르는 민요이다. 따라서 민요가 제 1차에서 제 7까지 어떠한 변화 양상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8> 민요의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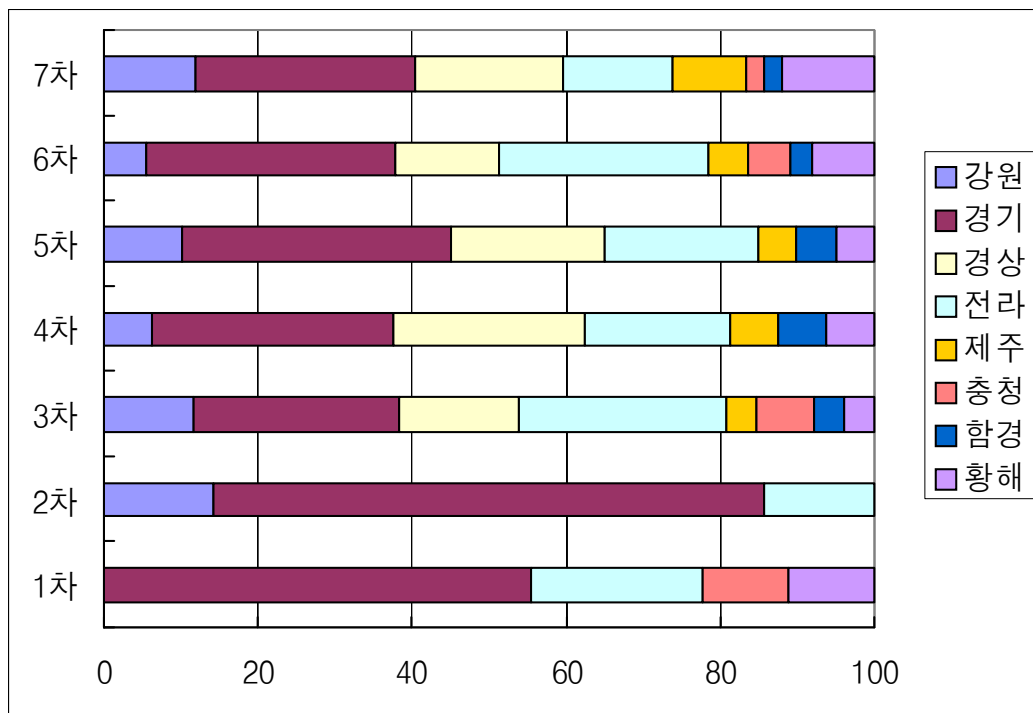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강원	0	14.29	11.54	6.25	10	5.41	11.9
경기	55.56	71.43	26.92	31.25	35	32.43	28.57
경상	0	0	15.38	25	20	13.51	19.05
전라	22.22	14.29	26.92	18.75	20	27.03	14.29
제주	0	0	3.85	6.25	5	5.41	9.52
충청	11.11	0	7.69	0	0	5.41	2.38
함경	0	0	3.85	6.25	5	2.7	2.38
황해	11.11	0	3.85	6.25	5	8.11	11.9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민요의 지역은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제주, 함경, 황해도 총 8지역으로 구분되며, 제 1차에서 제 3차까지는 지역구분 없이 한국 민요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 1차에서 제 3차까지의 지역은 제 4차 이후의 구분을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을 서도와 남도로 구분한 경우도 세분화하여 <표 28>의 지역구분과 같이 분석하였다.

민요 중 ‘박연폭포’의 경우 제 4차에서는 서도와 경기도, 제 5차에서는 황해도, 서도, 경기도, 제 6차에서는 경기도, 황해도로 지역구분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제 7차에 와서야 경기민요로 통일되었다. 하지만 제 4차에서 제 6차에 이르기까지 지역구분이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민요의 지역별 분포



<그림 7>에서 민요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제 3차, 제 6차, 제 7차에서 모든 지역의 민요를 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경기민요가 가장 많이 수록이

되었고 전라도가 그 뒤를 이었다. 충청도는 제 1차, 제 3차, 제 6차, 제 7차에만 수록이 되어있으며 그 비중도 매우 적었다.

교육과정기 초기에 가장 많이 수록되던 경기민요의 경우 점차 감소된 반면, 제주민요와 황해도 민요는 제 3차이후로 증가하였다. 반면 함경도민요는 제 4차에서 증가한 이후로 서서히 감소하였다.

가창영역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장르는 민요이며, 민요 중에서도 울산아가씨와 농부가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따라서 한글표기순서에 따라 경상도 민요인 울산아가씨의 교육과정에 따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9>와 같다.

<표 29> 울산아가씨의 내용 변화

교육과정	출판사명	학습목표	쪽 수
4차	교학	1. 내림가 장조의 조표에 의한 평조 가락의 민요를 부르며, 우리나라의 민속적인 정서를 느껴본다. 2. 악곡을 이루는 5음음계를 파악한다. 3. 세마치 장단을 이해한다.	1.5
	삼화	1. 우리민요의 리듬을 흥겹게 표현할 수 있다. 2. 세마치 장단의 리듬을 이해하고, 익숙하게 칠 수 있다. 3. 화음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합창을 할 수 있다.	2
	태립	1. 흥겨운 우리민요의 합창을 통하여 서로 협동하고,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연주능력을 한층 높이도록 한다. 2.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3부 합창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5차	동서	1. 민요 리듬의 특징을 살려 노래하며 세마치 장단을 친다. 2. 지휘에 잘 반응하며 경상도 민요를 멋지게 합창한다.	2

	세A	1. 제재곡을 보고부르기로 익히고, 장단에 맞추어 3부 합창으로 표현할 수 있다. 2. 단소, 가야금, 피리 등의 전통악기로 제재곡을 연주 할 수 있다.	1.5
	지학	1. 세마치 장단을 이해하고, 장단에 맞추어 경쾌하게 표현한다. 2. 장단에 맞추어 4부 합창을 하며 화음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1.4
	현대	1. 세마치 장단을 이해하고, 점음표의 리듬을 살려 바르게 표현한다. 2. 우리나라 전통 음계를 이해하고, 경상도의 여러 민요들을 감상한다.	1.6
6차	보진	1. 세마치 장단을 복습하여 몸에 익히고, 장단을 치면서 제재곡을 부른다. 2. 당김음에 의한 경상도 민요의 독특한 리듬을 이해하고, 흥겹게 부른다. 3. 가사에 의하여 민요풍의 노래를 짓는다.	1.5
	세A	1.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 제재곡의 가락에 시김새를 넣어 부를 수 있다. 2. 제재곡을 2부, 3부 합창으로 부르고 지휘도 할 수 있다.	2.7
	지학	1. 제재곡에 사용된 음계를 파악하고, 계이름과 가사로 자신있게 표현한다. 2. 각 성부를 연습하여 3부·4부 합창으로 부른다.	2.7
	태성	1. 세마치 장단을 익히고, 제재곡의 리듬을 바르게 표현한다. 2. 장구 장단에 맞추어 우리 민요의 멋과 흥겨움을 4부 합창으로 표현해 본다.	3
	현대	1. 세마치 장단을 이해하고, 점음표의 리듬을 살려 부분 4부 합창으로 흥겹게 표현한다. 2. 경상도 민요의 특징을 이해하고, 경상도 민요들을 감상한다.	1.8

울산아가씨를 수록한 교과서들의 장단, 조성, 박자, 연주형태, 편곡자, 할애하는 쪽 수 등은 대부분 유사하였다. 학습목표, 활동, 정리와 같이 가창곡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내용이 수록되기 시작한 것은 제 4차부터이며 학습목표가 수록된 교과서만을 선정하여 학습목표의 변화를 <표 29>에서와 같이 분석하였다.

울산아가씨는 3부·4부 합창을 위한 곡으로 편곡되어 수록되었으며, 제 5차의 세광출판사B와 제 6차의 세광B는 울산아가씨를 연주회용으로 수록하였는데 두 교과서는 저자가 동일하다.

제 6차의 법문사는 제재곡이 아닌 선택곡으로 수록하였으며 교과서안에서 차지하는 쪽 수가 가장 적다. 반대로 제 6차의 태성, 세광음악출판사A, 지학사는 2.7쪽, 3쪽에 각각 수록하였다.

<표 29>를 보면 대체로, 세마치 장단, 합창, 음계, 리듬에 관한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학습목표를 제시한 교과서는 총 5교과서로 제 4차의 태림과 제 5차의 동아서적은 ‘지휘하기’를 제시하였다.

제 6차의 보진재는 ‘민요풍의 노래짓기’를 제시하여 가창영역과 창작영역의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제 5차의 세광출판사A는 ‘전통 악기로 제재곡 연주하기’를 제 6차의 태성은 ‘장구장단에 맞추어 노래하기’를 각각 제시하여 기악영역과의 통합적 학습을 유도하였다. 제 6차의 세광음악출판사A는 우리민요의 특성을 잘 살려 부를 수 있도록 ‘시김새 넣어 부르기’제시하였다.

전 교육과정기에 걸쳐 울산아가씨를 유일하게 단음으로 제시한 악보는 제 6차의 법문사이고, 새로운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내용 또한 비중이 높은 교과서도 제 6차의 세광음악출판사이다. 따라서 제 6차의 법문사와 제 6차의 세광음악출판사A를 비교하면 각각 <악보1>, <악보 2>와 같다.

<악보 1> 제 6차의 법문사

선택곡 

### 울산 아가씨

세마치 우리 나라(경상도) 민요



1.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그-늘 ----- 경개나- 좋지만-  
 2. 울산의- 아가씨- 거동좁보-소 ----- 입오실- 문전에-

인-심도중구요      큰아기- 마음은- 열두폭치-마-----  
 쌍-초롱달구요      삼살개- 재놓-고-문밖에서-서-----

**실백잣**----- 없어서- **전복쌈**될세      에-----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린다네

해-----      동해나----- 울산은----- 좋-기도하-지  
 울산의----- 아가씨----- 유-경도하-지

- 실백잣...껍질을 간 잣
- 전복쌈...마른 전복을 물에 불려 얇게 저민 뒤에 잣으로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접은 마른 반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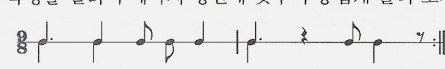
<악보 2> 제 6차의 세광음악출판사A

**학습 목표**

-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 제재곡의 가락에 시김새를 넣어 부를 수 있다.
- 제재곡을 2부, 3부 합창으로 부르고 지휘도 할 수 있다.


**학습 활동**

① 경상도 민요의 특성을 살려서 세마치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불러 보자.



덩 덩 텃콩텃 덩 텃콩

② 우리민요의 특성 중 가장 훌륭한 것은 시김새의 표현에 있다. 악보에 제시된 것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시김새를 넣어 불러 보자.



동 해 나 - 울 산 은 - - 갓 나 무그 - 늘 - - -  
 열 두 폭치 - 마 - - - 실 백 자 - 없 어 서 - -  
 에 - 에 - - - 야 - - -

③ 경상도 민요 '밀양아리랑'을 불러 보고 제재곡의 가락과 같은 부분이나 비슷한 부분을 찾아 보자.

**학습 정리**

- (1) 경상도 민요의 특징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그 특징에 따라 제재곡을 여러 형태로 표현해 보자.
- (2) 합창으로 부를 때 샘여림의 표현, 장구 장단의 반주, 발성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창을 해 보자.

제 6차의 법문사는 선택곡이며 다른 모든 교과서가 3부·4부 합창을 위한 곡을 제시한 것과 달리 유일하게 다음의 악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악보의 하단에는 생소한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 세광음악출판사A는 피아노반주부를 포함한 3부합창용 악보를 제시하였고, <악보 2>와 같이 시김새를 넣어 부르도록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울산아가씨가 가창곡으로 수록된 것은 제 3차 교과서 이후부터이다. 하지만 제 3차 교과서에는 학습목표 없이 악보만 제시되었고, 제 4차 이후로 학습활동이 제시되었다. 이는 가창곡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변화양상으로 가창곡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다.

### 3) 감상

이 장에서는 감상영역을 각 교과서의 목차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 목차 상 감상영역에 수록되어 있더라도 감상곡이 제시되지 않거나, 감상목표, 감상 요점 등 감상에 관한 활동내용이 전혀 제시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다. 또한 음악사, 장단, 음계와 같이 이해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영역에 포함하여 목차대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해당되는 교과서에는 국악에 대한 감상영역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감상영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과서의 목차대로 분석하였다.

감상영역의 경우 감상곡만 제시된 경우와, 감상자료와 감상곡을 함께 제시한 경우가 있다. 감상자료는 이미 분석한바 있는 이해영역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감상영역은 감상자료가 아닌 감상곡만을 중심으로 감상곡의 평균수, 장르,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교육과정기 초기에는 감상영역에서 감상곡과 감상자료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악곡의 악보가 제시된 경우를 감상곡에 포함하였다. 가창곡의 평균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1) 제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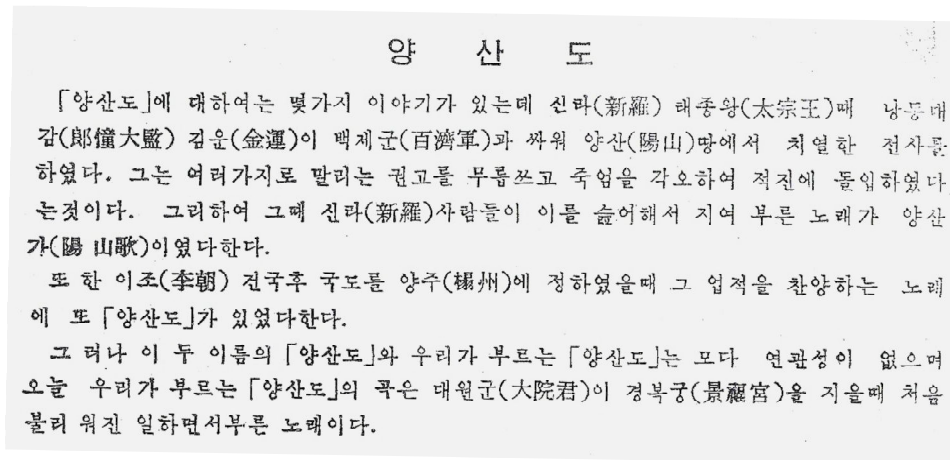
제 1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감상곡을 분석한 결과는 <표 30>과 같다.

<표 30> 제 1차 교과서의 감상곡

출판사명	곡 명	곡 수
창인	도라지타령, 방아타령, 양산도	3
친우	.	0
평균	2	

제 1차 교과서에서 감상영역은 출판사 창인사와 친우문화사의 교과서에만 제시되었다. 감상곡은 모두 민요이며, 도라지타령과 방아타령은 곡에 대한 설명과 악보를 함께 제시하였고, 양산도는 <그림 8>과 같이 악보 없이 곡에 대한 설명만 제시하였다. 양산도는 제 5차 교육과정 이후로 감상영역이 아닌 가창영역의 제재곡, 참고곡으로 수록되었으며 악보와 함께 학습목표, 학습활동, 학습정리와 같은 학습내용들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림 8> 감상곡 '양산도'



제 1차 교과서는 감상의 비중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감상곡의 종류 또한 민요로 한정적이다. 친우문화사는 감상자료에 해당되는 음악사, 음악가, 악기, 음계에 대한 설명만을 할 뿐 감상곡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감상활동의 목표

가 나타나지 않으며 감상곡의 설명에 있어서도 악보가 제시되지 않는 등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에 매우 불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2) 제 2차

제 2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감상곡을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제 2차 교과서의 감상곡

출판사명	곡 명	곡 수
동성	농악,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중모리’,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3
현대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중모리’,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판소리 ‘춘향전’	3
호악	농악, 가야금 산조 중에서 ‘중중모리’, 판소리 ‘춘향전’,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영산회상 중 ‘타령’	5
평균	4	

제 2차 교과서에서 감상영역은 3종의 교과서에 모두 수록 되어있다. 하지만 감상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감상활동을 위한 목표나 감상요점과 같은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다. 제 1차에서는 감상곡으로 민요만을 제시한 것과 달리, 제 2차에서는 농악, 산조, 판소리, 평시조, 아악인 영산회상과 같이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수록되었다. 3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민속악 위주로 감상곡을 수록하였으며 호악사만 유일하게 아악인 영산회상을 수록하였다. 또한 제 1차에서는 도라지타령, 방아타령과 같이 악곡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데 반해, 제 2차에서는 악곡을 제시하지 않고 악곡의 종류만을 제시하고 있다.

제 2차 교과서의 감상 내용은 제 1차 교과서와 비교하여 그 내용이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 2차 교과서에도 감상곡에 따른 활동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감상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현대악보출판사의 경우 목차의 감상영역에 우리나라 민속악 외에도 국악의 장단(리듬), 우리나라 음악 I, 우리나라 음악 II, 국악의 발자취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그 부분의 내용은 장단, 음계, 음악사와 같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속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는 감상이 아닌 이해영역에 해당된다.

### (3) 제 3차

제 3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감상곡을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표 32> 제 3차 교과서의 감상곡

출판사명	곡 명	곡 수
교문	‘정읍’, 판소리 ‘춘향가’, 아악‘문묘제례악’, 가야금산조 중 ‘중모리’, 가곡 ‘우조초삭대엽’	5
국민	민요, 농악 장단 중 ‘굿거리’,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중에서 ‘진양조’, 영산회상 중에서 ‘중령산’, 구군악	6
규문	구군악, 판소리 ‘춘향가’, 농악, 민요	4
동아	평시조 ‘청산리 벽계수야’, 가야금 산조중에서 ‘중중모리’, 농악, 판소리 ‘춘향전’, 범패 ‘삼정례’, ‘거불’	6
학문	영산회상 중 ‘타령’, 농악, 기악합주‘천년만세’, ‘구군악’, 가야금 산조 중 ‘중모리’, ‘중중모리’, ‘세령산’	7
평균	6	

제 3차 교과서는 제 2차 교과서에 비해 감상영역에 할애하는 쪽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록된 장르도 제 2차는 농악, 산조, 가곡과 시조, 평시조, 판소리, 영산회상만 다루었지만, 제 3차는 그밖에 범패, 민요, 문묘제례악, 구군악, 기악곡, 기악합주곡, 창작국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교문사, 국민음악연구회, 학문사는 목차에 기악, 감상, 창작과 같은 각 영역별 분류가 잘 이루어져 있다. 반면 규문각은 목차의 감상영역에는 서양음악만 제시하고 국악은 우리나라 음악이라는 부분에 영역의 구분 없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목차만 보고는 감상영역과 이해영역을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감상활동이 제시된 한국민요와 산조만 감상에 포함시켰다.

#### (4) 제 4차

제 4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감상곡을 분석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표 33> 제 4차 교과서의 감상곡

출판사명	곡 명	곡 수
고려	농악, 판소리 ‘신연맞이’	2
교학	‘여민락(송평만세지곡)’, 민요, ‘정읍(수제천)’,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범피중류’,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가야금산조 ‘김운덕류’, 시나위, 전북농악	8
화학	‘취타(만과정식지곡)’, 종묘제례악 중 ‘희문’, 구군악, 민요, 판소리 ‘춘향가’, 농악,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7
평균	6	

제 4차 교과서는 제 3차에 비하여 장르나 비중면에서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총 5권의 교과서 중에서 3권에만 국악감상영역을 수록되어 있다.

국악감상영역을 수록하지 않은 삼화서적의 경우 목차의 ‘감상’영역에 서양음악과 관련된 내용만을 수록하였다. 목차의 ‘국악’이라는 영역에 국악사, 국악의 기악곡과 성악곡, 국악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모두 감상영역이 아닌 이해영역이다. 태림출판사는 목차에 제재곡만을 제시하고 감상, 기악, 창작 활동을 따로 분류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재곡과 연계되어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감상의 경우, 예를 들면 제재곡인 농부가를 제시하고 연구과제로 ‘춘향가 중에 들어 있는 <농부가>를 감상해보자.’와 ‘농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동요를 비교 감상하여 보자’와 같은 감상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삼화서적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고려서적은 감상활동이 태림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제재곡과 연계하여 제시하면서도 목차에서 감상영역을 명확히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5) 제 5차

제 5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감상곡을 분석한 결과는 <표 34>과 같다.

<표 34> 제 5차 교과서의 감상곡

출판사명	곡 명	곡 수
금성	민요, 사물놀이‘웃다리 풍물’, 판소리 ‘심청가’, 평시조 ‘태산이 높다하되’, 합주곡 ‘현악영산회상 중 타령’, ‘관악 영산회상 중 상령산’, 관악 합주 ‘수제천’	7
동서	가사 ‘춘면곡’,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시나위 ‘중모리’, 가야금산조‘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 판소리 ‘심청가’	5
동출	가야금협주곡 ‘새야새야’(창작국악),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창작국악), 판소리 ‘춘향가’, 평시	8

	조 ‘동창이 밝았느냐’, 가야금산조, 대금산조 ‘청성자진한잎’, 영산회상, 구군악	
세A	판소리 ‘사랑가’, 가곡 - 남창계면조 ‘청석령 지나거다’, 관현악곡 ‘여민락’, 거문고 산조, 농악	5
세B	민요, 천년만세	2
지학	'정읍(수제천)', 농악, '대취타', '만파정식지곡', '여민락', 현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삼현영산회상 중 '상령산' '청성곡', 판소리 '춘향가',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단가, 가야금산조 '진양, 중모리, 자진모리', 범패, 종묘제례악 중 '영신희문', 문묘제례악 중 '황종궁', 새로운 전통음악 '곤', '합주곡 제 6번', '산운', '농악과 국악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22
학연	민요, '수제천', 판소리 '심청가',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산조, 영산회상, 시나위, 여민락	8
현대	민요, 무악, 농악, 수제천, 범패, '동동', '보허자',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중 '희문', '영관', 관현악곡 '여민락', 영산회상중 '상현도드리', 가곡 '언락', 가사 '춘면곡', 잡가 '유산가', 합창곡 '가시리', 가야금독주곡 '침향무', 관현시곡 '나의 조국' 제 1부, 대금 협주곡 '대바람 소리'	19
평균		10

<표 34>를 보면 제 5차 교과서의 국악감상내용이 제 4차와 비하여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총 8종의 교과서 중에서 동아서적을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감상내용이 수록되었다.

금성출판사는 감상내용 중에서 한국의 전통악기와 한국 전통 음악의 분류를 제외하고는 감상의 요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향토의 민요의 경우 ‘1. 가까운 향토의 민요를 찾아, 그 유래와 내용을 살펴보고 감상해보자’, ‘2. 향토의 민요와 다른 지방의 민요를 듣고, 그 특징을 비교해 보자.’, ‘3. 각 지방의 토속 민요와 통속 민요에 대하여 알아보고 감상해보자.’와 같이 감상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가곡과 시조에서는 감상영역에서는 처음으로 '평시조(태산이...)'의 악보를 정간보로 제시하였다.

동아서적은 제 4차의 삼화서적과 마찬가지로 감상에서는 서양음악만을 다루고 국악감상부분은 따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전통음악'이라는 영역이 분류되어 있지만 감상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

동아출판사는 처음으로 창작 국악곡을 감상곡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창작국악곡에 대해서는 제 3차의 교문사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지만, 교문사에서는 창작 국악곡에 대해서 설명을 할 뿐 감상곡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산조에서 가야금 산조가 아닌 대금 산조가 수록된 것도 처음이었다.

세광음악출판사 A도 금성출판사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감상 요점이 제시되어 있다. 판소리에서 감상요점으로 '판소리의 음악적 특징을 파악하고 감상할 수 있다'를 제시하였고, 가곡에서는 '전통 성악곡 '가곡'의 예술적 가치를 파악하고 감상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감상요점을 살펴보면 판소리와 가곡처럼 장르에 대해서 언급할 뿐 구체적인 감상곡은 언급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조에서 거문고 산조를 새롭게 수록하였다.

세광음악출판사 B는 감상요점이 아닌 제재곡에서와 같은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 5차의 다른 교과서에 비해 감상영역이 매우 적게 수록되어 있다. 지학사는 문묘제례악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학연사는 감상요점을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기악곡에만 감상요점이 없다.

현대음악출판사는 목차에서 '음악사와 감상'영역을 두고 음악사에 따라 감상곡을 제시하였다. 제 1차에서 제 5차까지의 교과서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새로운 곡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창작 국악곡에 있어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소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 5차 교과서는 감상활동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제시되었고, 감상곡 악보로 정간보가 수록되었으며, 감상곡의 장르가 이전에 비해 다양해졌다.

(6) 제 6차

6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감상곡을 분석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표 35> 제 6차 교과서의 감상곡

출판사명	곡 명	곡 수
동아	‘수심가’, ‘여음 수심가’, 가곡 ‘태평가’, ‘육자배기’, 가야금산조, 대금산조, ‘여민락’, ‘수제천’, ‘침향무’, ‘대바람소리’	10
법문	영산회상 중 ‘상령산’, ‘수제천’, 판소리 ‘춘향가’, 시조 창 ‘동창이 밝았느냐’, ‘취타’, ‘대취타’, 가야금산조 중에서 ‘휘모리’, 풍물놀이, 종묘제례악, 범패 ‘걸채비소리’, 시나위	11
보진	‘수제천’, ‘여민락’,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범패, 가곡, 가사, 시조, 단가, 잡가, 판소리 ‘춘향가’, ‘심청가’, 관악협주곡 ‘곤’, 가야금 협주곡 ‘새야새야’, 합창곡 ‘가시리’,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대취타, 영산회상, 가야금산조, 대금산조, 시나위	22
세광A	현악영산회상 중 ‘상령산’, 천년만세, 시나위, 가야금산조, ‘대바람소리’, ‘새야새야’, 생소병주 ‘헌천수’,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창극 ‘홍보가’	10
세광B	민요, 가곡 ‘우조초수대엽’, 평시조 ‘동창이 밝았느냐’, 가사 ‘백구사’, 잡가 ‘유산가’, 천년만세, 피리독주 ‘자진한잎’ 양금·단소병주 ‘세령산’, 종묘제례악, ‘수제천’, 가야금 산조 ‘김죽파류’, 사물놀이, 시나위, 판소리 ‘홍부가’, ‘춘향가’,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 ‘침향무’, ‘대바람소리’	18
지학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범패, 경모궁 제례악, 세악, 병주 ‘세영산’, ‘수룡음’, 독주 ‘청성곡’, ‘상영산’, 시나위, 가야금산조, ‘대취타’, ‘만파정식지곡’, 시조, 가곡, 가사, 판소리 ‘춘향가’,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	38

	벽가, 단가, 창극, 가야금병창, 잡가 ‘놀랑’, ‘유산가’, ‘보림’, 민요, 현악합주 ‘황하청(보허사)’, 영산회상, 관악영산회상, ‘수제천’, ‘여민락’, ‘평조회상’, ‘송광복’, ‘청소년을 위한 국악 관현악 입문’, ‘합주곡 제 6번’	
태림	‘수제천’, 범패, 문묘제례악 ‘송신·황중궁’, ‘보허자’, ‘동동’, ‘낙양춘’, ‘정동방곡’, 종묘제례악, 민요, 가야금 산조, 현악 영산회상, 판소리,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기악 합주곡 ‘매국’	14
태성	풍물놀이, 현악 영산회상, ‘여민락’, ‘관악보허자’, ‘수제천’, ‘대취타’,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경모궁제례악, 범패, 가곡, 가사, 시조, 시나위, 가야금산조, 판소리와 창극, 잡가, 입창, ‘대바람소리’, ‘가시리’, ‘영목’, ‘성주춤’	22
현대	무악, 풍물놀이, ‘수제천’, 범패, 청성자진한일, 서경별곡, 풍입송, 관악보허자, 낙양춘, 문묘제례악, 민요, 판소리 ‘심청가’, 종묘제례악, 여민락, 영산회상, 군악, 언락, 춘면곡, 평시조, 파봉선, 침향무, 고추잠자리	22
평균	19	

제 6차 교육과정기의 총 9종의 교과서에는 모두 국악감상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악감상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아출판사는 목차에 ‘감상’영역이 없고 ‘감상자료’만 제시되어 있다. 국악 감상곡은 ‘감상곡(전통음악)’단원에 수록이 되어 있으며 각 감상곡에는 감상의 요점이 뚜렷이 나타난다. 기존의 다른 교과서는 감상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지역별 민요를 모두 다루었다면, 동아출판사는 서도민요‘수심가’, ‘엮음 수심가’와 남도민요‘육자배기’만을 다루고 있다.

법문사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의 감상영역에서 국악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감상곡을 제시해 놓았다. 하지만 감상활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진재는 범패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상의 요점이 제시되고 있으며, 창극과

현대작품에서 ‘곤’과 ‘새야새야’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세광음악출판사A는 목차에 감상과 감상곡으로 분류해서 감상은 감상곡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표 34>에서는 구체적인 감상요점이 제시되는 감상곡만을 감상영역에 포함시켜 놓았다.

세광음악출판사B는 학습목표를 제시하였지만 사물놀이, 가야금 병창, 시나위에는 학습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감상곡의 장르로 피리독주 ‘자진한잎’과 양금·단소병주 ‘세령산’, 가야금 병창을 새롭게 수록하였다.

태림출판사는 학습목표를 분명히 나타내었고, 음악사와 감상을 통합하여 시대에 따라 감상곡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시대에 따른 분류 외의 감상곡일 경우 우리나라의 민요부분은 학습목표가 없고 ‘각 지방의 민요에 나타나는 가락의 특징을 알아보자.’는 다소 모호한 활동이 제시되었다. 또한 판소리 부분도 판소리 ‘춘향가’와 ‘흥부가’를 감상으로 제시하고는 판소리의 유래, 구성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학습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태성은 국악의 종류에 따라 감상곡을 구분하여 나타냈으며, 감상요점을 제시하였다. 창작국악부분에서 ‘영목’과 ‘성주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현대음악출판사는 시대에 따라 감상곡을 제시하였고 학습목표가 분명하다. 창작국악부분에서 관현악곡 ‘과봉선’과 두 개의 해금을 위한 2중주곡 ‘고추잠자리’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 (7) 제 7차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감상곡을 분석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제 7차 교과서의 감상곡

출판사명	곡 명	곡 수
교학	경기 입창 ‘자진 산타령’, 반주음악, 풍물놀이, 판소	26

	리'춘향가',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가곡, 가사, 시조, 수심가, 엮음수심가, 시나위, 산조,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범패, 무악, 창작 국악 '송광복', 창작 국악 '17현 가야금과 실내악을 위한 시계탑', 휘모리 잡가 '육칠월 흐린 날', 대취타, 영산회상, '수제천', 민요	
대한	'수제천', 범패, 문묘제례악, '관악보허자', 종묘제례악, 현악영산회상, 판소리, '침향무', '대바람소리'	9
두산	'수심가', '엮음수심가', 태평가, 잡가와 단가, 판소리 '춘향가', 산조, 시나위, 현악 영산회상, 천년만세, '만선', '신밧놀이', '만수산드렁춤', '한', '동동', '보허자', 종묘제례악	17
박영	가곡, 잡가, '수제천', 시나위, 판소리, '비단길', 가야금독주곡 '적념', 풍물놀이와 사물놀이	9
세광	봄이왔네, 가야금독주곡 '봄', 풍년가, 춤곡, 민요, 창극, 판소리, 범패, 가야금 독주곡 '침향무', 가야금 산조, 시나위, 가곡, 시조, 가사, 잡가	15
천재	잡가 '보렘', 가사 '어부사', 범패, '수제천', 우조시조 '월정명', 영산회상, 가곡 '이삭대엽', 창극, 가야금병창, 가야금산조 협주곡	10
태성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경모궁 제례악, 범패, 웃다리풍물, 청성곡 '청성자진한잎', 대바람소리	7
현대	시조, 가곡, 가사, 경기 12잡가 '유산가', 영산회상, '정선아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야금 삼중주를 위한 세 개의 변주곡 '상주모심기소리', 시선 밧노래를 위한 국악 관현악곡, 판소리, 창극, 우리나라 민속극 '봉산탈춤',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범패, 진도무속노래	15
평균	14	

제 7차 교육과정기의 총 8종의 교과서에는 제 6차 교육과정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과서에 국악감상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국악감상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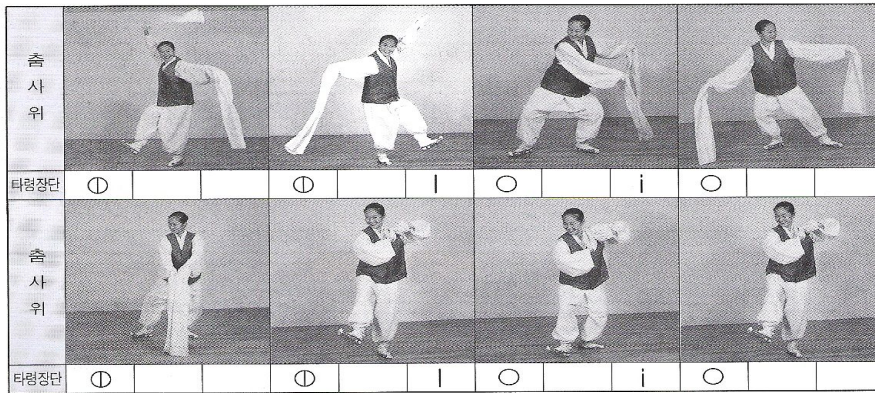
대한교과서는 감상영역을 ‘한국음악사 · 감상’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단원은 한국 음악사를 설명하고 그 시대에 대표적인 음악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감상곡의 악곡을 적게는 한마디 많게는 7마디까지 제시하였고, 연주나 공연 모습이 담긴 사진, 작곡가사진들도 수록하였다.

현대음악출판사는 전체적으로 다른 교과서에 비해 감상곡을 많이 수록하였으며, 창작국악곡도 ‘정선아라리’주제에 의한 변주곡, 가야금 삼중주를 위한 세개의 변주곡 ‘상주모심기소리’, ‘시선 뱃노래를 위한 국악 관현악곡’ 3곡을 수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악기부분에서는 연주법에 따른 분류를 바탕으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사진을 제시하여 일상적으로 접하기 힘들고 생소한 악기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민속극 ‘봉산탈춤’에서는 학습목표로 ‘우리나라 민속극의 특징과 반주 음악을 알아본다, 봉산 탈춤 음악에 맞추어 창의적인 신체동작으로 표현해본다.’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9>와 같이 봉산탈춤의 춤사위를 제시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신체동작을 표현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이 능동적으로 감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현대 음악출판사 ‘봉산탈춤’

<봉산 탈춤 춤사위>



세광음악출판사의 경우 감상영역을 서양음악과 연계하여 구성한 내용이 많았다. 계절속의 음악, 우리나라와 서양의 춤, 뮤지컬과 창극, 오페라와 판소리 등이 그 예이다. 계절속의 음악에서는 봄에는 경기민요인 ‘봄이 왔네’와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봄’을 감상곡으로 제시하였고, 가을에는 ‘풍년가’와 비발디 「사계」 중 ‘가을’을 제시하여 동서양의 여러 음악을 다양하게 접하고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서양의 춤에서는 우리의 춤과 서양의 춤을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뮤지컬과 창극, 오페라와 판소리에서도 각각의 특징을 비교 감상하도록 제시하였다.

모든 감상곡은 ‘~ 감상한다’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목표가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요의 경우는 구체적인 감상 활동목표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요는 민요의 특징과 지방에 따른 민요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어 감상영역보다는 이해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태성출판사는 모든 감상곡에 악곡을 제시하였다. 의식음악에서는 종묘제례악의 보태평 11곡 중 첫째곡인 ‘희문’의 악보를 오선보로 제시하였고, 창작국악곡인 ‘대바람 소리’도 오선보로 제시하였다. 또한 ‘청성곡’은 단소악보를 정간보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103쪽에 제시된 단소연주법과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고려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웃다리 풍물’의 경우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활동에서 벗어나 감상곡을 직접 연주해보고 변주하는 등 기악, 창작과 같은 다른 활동영역과 함께 통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제 7차 이전의 교과서에서도 웃다리 풍물이 이미 수록된 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5차의 금성출판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과정기를 거치면서 감상곡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0>과 <그림 11>에 제 5차의 금성교과서와 제 7차의 태성출판사의 '웃다리 풍물'을 나타내었다.

<그림 10> 제 5차 금성출판사

**감상 3** 사 물 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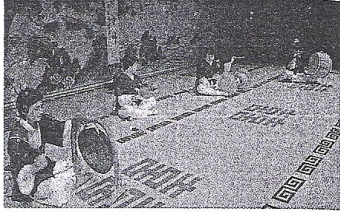
●감상의 요점●

1. 사물놀이에 쓰이는 네 가지 악기의 특징과 음색을 파악하여 보자.
2. 흥겹고 신명이 나는 사물놀이의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하자.
3. 사물놀이에서 웃다리 풍물을 감상하여 장단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풍물(농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징, 팽파리(쇠), 북, 장구, 대평소, 소고(벅구)인데, 이 중에서 대평소와 소고를 뺀 네 가지 악기를 사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농악에서가 아니고, 근래에 이들 네 악기가 따로 모여서 연주하는 것을 사물놀이이라고 한다.

사물놀이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물은 농악에서만 아니라, 굿이나 무용 반주 음악 등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실내에 앉아서 연주할 때는 ‘앉은반’이라 했고, 마당에서 서서 연주할 때는 ‘선반’이라고 불렀다.

사물놀이가 선반일 때는, 연주자들은 장단을 치면서 부모놀이(쇠잡이)와 채상돌리기를 함께 함으로써 재주를 부리고 춤



을 추기도 하며, 호흡과 흥이 완전히 일치되고, 신명이 나면 물아의 경지에 빠져든다.

그리고 농악에서 쓰는 사물과는 달리, 불교의 의식에 사용되는 사물은 범고, 운판, 북이, 대경의 네 가지 악기이다.

●‘웃다리 풍물’

웃다리 풍물이란 중부 지방, 즉 경기도와 충청도 지방에서 행해지는 농악 가락(장단)을 모아 사물놀이의 연주곡으로 구성한 것이다. 웃다리 풍물에서 다음 여러 가지 장단의 특징과 네 악기의 음색에 유의하면서 감상해 보자. 사물놀이에는 이 밖에 지방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① 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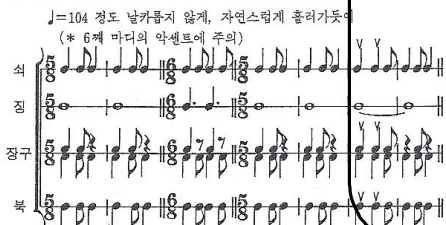
♩=104 정도 날카롭지 않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 6째 마디의 악센트에 주의)

쇠

징

장구

북





4. ①, ②를 모듬을 바꿔 손뼉으로 장단을 치며, 구유으로 함께 불러 보자.
5. 모듬별로 나누어 손뼉 장단으로 연주를 하며,      부분에 '얼췌, 절췌, 종다, 얼췌구' 등의 추임새를 넣어 보자.

6. 사물(쟁과리, 징, 장구, 북)을 이용하여 웃다리 풍물 가락의 한 부분을 다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변주하여 발전시켜 보자.
  - 적당한 가락을 주제로 설정한다.
  - 서로 주고받는 순서를 생각한다.
    - (보기) 징 + 쟁과리 ⇨ 북 + 장구
  - 어느 부분에서 개성 있는 목소리로 추임새를 넣고 변주를 할 것인지 생각한다.
    - (보기) 주제를 2번 반복한 후 ⇨ 변주(추임새 추가) ⇨ 주제 재현
  - 박자, 리듬, 강약의 변화, 악기의 선택 및 연주법(소리의 변화) 등을 변화시켜 박진감 있게 전개시킨다.

[변주할 때의 유의점]

박 자	$\frac{12}{8}$ 박자를 바탕으로 하되 $\frac{5}{4}$ 박자, $\frac{6}{8}$ 박자 등의 혼합 박자를 알맞게 섞는다.
리듬	기본 박을 앞뒤로 약간씩 덩겨 생동감이 있게 한다(당김음의 적절한 사용).
강약의 변화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또는 강약을 강하게 대비시키되 앞뒤 연결이 자연스럽게 한다.
악기의 선택	악기를 적절히 선택하여 음색 및 음높이에 변화를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낮고 긴 음</li> <li>• 북-힘이 있고 짧은 음</li> <li>• 장구-빠르고 다양한 음</li> <li>• 쟁과리-높고 경쾌한 음</li> </ul>
연주법	북판을 칠 것인지, 변죽을 칠 것인지 또는 진동을 왼손으로 차단하면서 연주할 것인지(쟁과리), 채 없이 손으로 연주할 것인지를 고려한다.

7. 변주한 것을 모듬별로 녹음하여 들어 보고, 잘못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이야기해 보자. 이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생각하자.
  - 곡의 전체적 흐름(구조)이 잘 되었는가?
  - 주제 가락이 분명하게 발전되었는가?
  - 음색의 대비와 조화가 잘 이루어졌는가?
  - 흥겨운 분위기가 잘 드러났는가?

제 5차의 웃다리 풍물은 사물놀이의 한 부분으로 제시되었고 감상 후 장단의 특징을 파악해보는 감상요점이 제시되었다. 반면 제 7차의 웃다리 풍물은 감상의 한 단원으로 수록되었으며 감상요점으로 웃다리 풍물을 감상하고 웃다리 풍물의 장단을 함께 불러보고, 가락을 변주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이 거듭되면서 학습활동인 감상요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더욱 깊이있고 세분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천재교과서는 감상곡이 가악인 경우 가창영역과 연계한 따라 부르기 활동이 제시되어 감상과 가창을 통합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가악은 '보림'을 제외한 '어부사', '우조시조', '이삭대엽' 3곡을 정간보로 제시하고 있다.

박영사에서는 감상영역에 우리나라의 악기와 한국음악의 역사를 수록하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악기와 음악사에 대한 설명일 뿐 구체적인 감상활동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감상영역에서 제외하고 이해영역에 포함시켰다.

두산출판사는 단원을 통합학습단원과 영역별 활동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통합학습에서는 활동, 이해, 표현, 감상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고, 영역별활동은 각 영역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본능력을 습득, 표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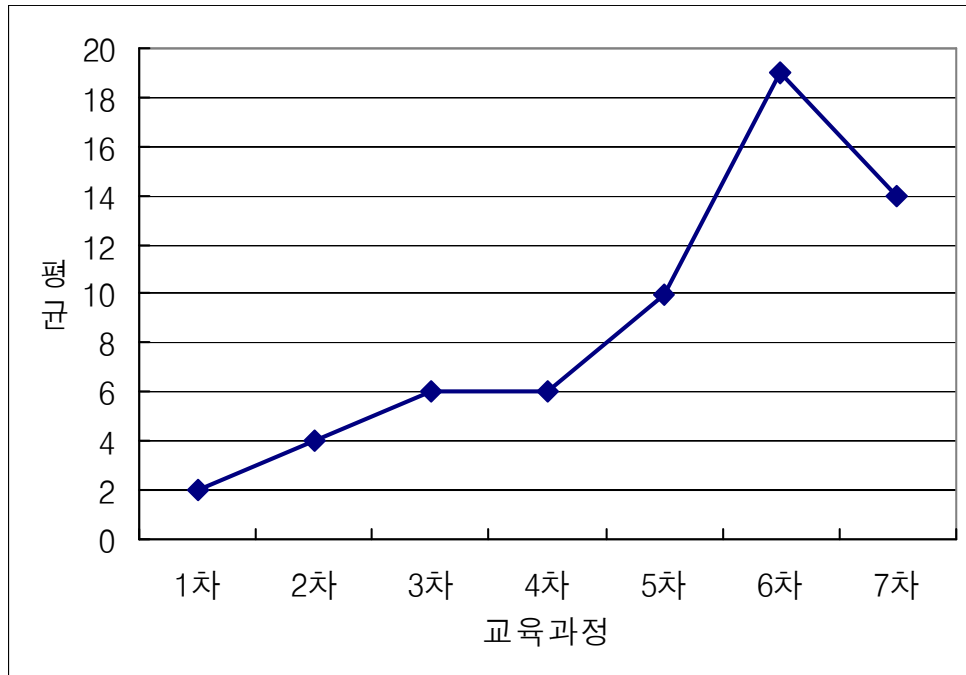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의 다른 교과서는 감상영역이지만 감상활동은 전혀 없고 음악사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서 이해영역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두산의 경우는 ‘~들어보자’와 같은 구체적인 감상목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목차의 분류대로 감상영역에 포함시켰다.

## (8) 제 1차 ~ 제 7차

### ① 감상곡 수의 평균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 국악 감상곡 수의 평균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감상곡 수의 평균



<그림 12>를 보면 국악 감상곡의 수는 제 4차와, 제 7차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 6차에서는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제 1차에 비하여 9배가량 증가하였다. 하지만 제 7차는 오히려 제 6차보다 감상곡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그림 6>가창곡 수의 평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 7차 교육과정은 제 6차 교육과정보다 각 영역이 균형 있는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② 감상곡의 종류

국악 감상곡의 종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7> 감상곡의 종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계
민요	○		○	○	○	○	○	6
농악		○	○	○		○	○	5
산조		○	○	○	○	○	○	6
시조		○	○	○	○	○	○	6
판소리		○	○	○	○	○	○	6
아악 <sup>31)</sup>		○	○	○	○	○	○	6
가곡			○		○	○	○	4
의식음악 <sup>32)</sup>			○	○	○	○	○	5
사물놀이					○	○		2
가사					○	○	○	3
시나위					○	○	○	3
창작국악					○	○	○	3
잡가					○	○	○	3
무악					○	○	○	3
단가						○	○	2
입창						○	○	2
병주						○		1
병창						○	○	2
세악						○		1
반주음악							○	1
민속극							○	1
계	1	5	8	7	13	19	18	

<표 37>을 보면 제 1차 교육과정은 민요만 수록되었고, 점차 항목이 증가하여 제 6차와 제 7차에 와서는 19항목, 18항목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차에서 항목 수가 급증하였고, 다시 제 5차와 제 6차에서 항목의 증가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점차 다양한 국악 감상곡을 수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개의 항목 중에서 민요, 산조, 시조, 판소리, 아악이 가장 많이 수록이 되었다. 제 6차와 제 7차에서 단가, 입창, 반주음악, 민속극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감상곡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데 국악의 비중이 증가한 만큼 내용 또한 더욱 다양하게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 영산회상, 여민락, 보허자, 낙양춘, 정읍, 천년만세, 취타.

32)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경모궁제악, 범패.

제 2차는 제 1차에 비하여 항목 수가 증가하였고, 제 3차는 항목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곡의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아악의 경우 제 2차에서는 영산회상만 제시한 것과 달리 ‘수제천’, 구군악, ‘천년만세’와 같은 다양한 곡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반면 제 4차는 제 3차에 비하여 항목의 수가 감소하였다. 제 5차에서는 창작국악곡이 처음으로 제시되었고, 산조에 있어서도 기존의 가야금산조가 아닌 대금산조, 거문고산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제 6차는 병주와 병창과 같은 새로운 연주형태의 악곡을 제시하였고 제 7차도 기존에 수록된 바 없는 반주음악, 민속극 ‘봉산탈춤’과 같이 새롭고 다양한 곡들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 ③ 감상곡의 시대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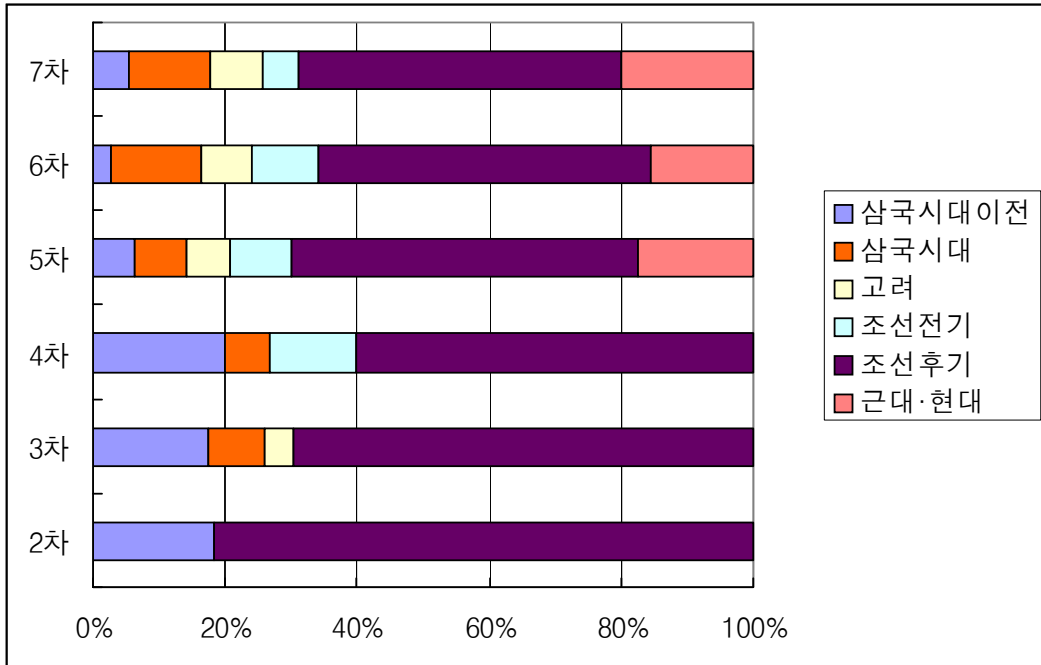
감상곡의 시대를 제 1차부터 제 7까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8>과 같다.

<표 38> 감상곡의 시대별 분포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삼국시대이전	18.18	17.39	20	6.35	2.84	5.56
삼국시대	0	8.7	6.67	7.94	13.48	12.22
고려	0	4.35	0	6.35	7.80	7.78
조선전기	0	0	13.33	9.52	9.93	5.56
조선후기	81.82	69.57	60	52.38	50.35	48.89
근대·현대	0	0	0	17.46	15.6	20

<표 38>에서 제 1차 교육과정에서는 시대를 알 수 없는 구전되어온 민요가 감상곡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음악사를 삼국시대이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대·현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감상곡의 시대별 분포



<그림 13>에서 감상곡의 시대별 분포를 보면 제 5차에서 제 7차까지만 모든 시대의 음악을 수록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음악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고 고려시대의 음악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조선후기의 음악은 제 2차에서는 80%이상이었지만 제 7차에서는 약 48.89%로 감소하였다. 고려시대의 음악은 제 2차와 제 4차에서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제 7차에서는 7.78%로 증가하였다. 삼국시대의 음악 또한 제 3차에서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삼국시대 이전의 음악과 조선전기의 음악은 오히려 점차 감소하였다. 제 5차 이후에 처음 수록되기 시작한 근대·현대음악의 경우는 제 5차 17.46%, 제 6차 15.6%, 제 7차 20%로 조선시대 후기 음악의 뒤를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감상곡의 시대별 분포에서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시대를 집중적으로 수록하는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감상영역은 감상곡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시대에 따른 분류, 장르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상영역은 감상곡과 감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 감상곡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감상영역에서 감상활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단순히 감상영역보다는 이해영역에 가까운 율명이나 국악의 종류, 악기의 종류와 같은 감상 자료만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도 많았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변화되면서 감상활동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기악

기악부분은 제 1차에서 제 7차에 이르기까지 가창, 감상영역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던 영역으로, 제 1차와 제 2차 교과서에는 기악내용이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교과서의 목차에서 기악영역에 포함된 내용만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9>와 같다.

<표 39> 제 1차 ~ 제 7차 기악내용 분석표

교육과정	출판사명	가야금	단소	피리	장구	북	대금	소금	사물놀이	계
3차	규문	○	○	○						3
	학문	○	○		○					3
4차	고려	○								1
	교학	○								1
	태림	○			○					2
	화학	○	○	○						3
5차	금성		○		○					2
	학연		○	○						2
	동아		○							1
	지학	○	○	○			○	○	○	6
	현대	○	○				○			3
	세B	○			○					2

	세A	○	○	○	○					4
6차	지학		○		○	○				3
	두산	○	○	○						3
	법문	○	○		○					3
	보진	○	○		○				○	3
	세A		○	○					○	3
	세B	○	○		○		○		○	5
	태킴		○		○		○			3
	태성	○	○				○			3
	현대	○	○				○			3
7차	교학	○	○		○				○	4
	대한						○	○		2
	두산		○						○	2
	박영							○		1
	세광		○		○	○		○	○	5
	천재		○		○			○		3
	태성	○	○							2
	현대	○	○		○	○		○	○	6
계	19	24	7	14	3	7	6	8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 기약항목은 평균 3항목이 제시되었으며 주요 약기는 단소, 장구, 가야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단소가 24권의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가야금은 19권, 장구는 14권의 교과서에 각각 수록되었다.

제 3차와 제 4차 교육 과정기에는 가야금이 중심이었고, 제 5차 이후로 단소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제 5차 이후로 북, 소금, 사물놀이 악기들이 추가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해, 가창, 감상과 같은 다른 영역에서는 기존의 내용과 더불어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로 제시되는 변화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기약영역은 각 교육과정기별로 변화가 나타나는데 각 차수별로 교과서에 수록되는 악기군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제 6차에서는 다루지 않던 소금을 제 7차에서는 단소다음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고, 대금의 경우 제 7차보다 제 6차에 수록한 교과서가 더 많았다.

제 3차에서 제 7차까지의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악기인 단소를 중심으로 내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 3차는 그림이 없고 소리 내는법,

자세, 운지법에 대한 설명만이 제시되어 이해가 어렵다. 제 4차부터 악기그림과 오선보가 함께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제 5차는 취구 대는법을 다양한 각도의 그림으로 수록하였다. 제 6차는 단소 정간보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제 7차에는 연습방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5) 창작

창작영역은 이해와 활동의 5영역 중에서 가장 적게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다. 제 1차와 제 2차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제 3차에서 제 7차까지도 모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제 3차에서 제 5차까지의 창작내용은 민요풍 멜로디의 작곡, 한국풍의 가락 짓기, 민속풍의 가락 짓기, 전통적인 가락 짓기와 같이 이름만 다르게 제시하고 있을 뿐 내용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제 6차의 지학사에서 장단에 따른 변형 장단 만들어 치기를 제시한 이후, 제 7차에서 더욱 다양한 창작활동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학사는 소리 북 장단 만들어 치기, 변형장단 만들어 치기를 제시하였고, 세광음악출판사는 단순히 민요풍의 가락 짓기가 아닌 구체적인 악곡에 따른 가락 짓기를 제시하여 기존의 악곡을 변형하는 변주를 함으로써 손쉽게 창작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대음악출판사는 민요음계에 따른 가락 짓기 이외에도 민요풍의 가락 즉흥 연주하기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제 3차에서 제 7차까지 창작영역이 수록되어있는 교과서와 그 내용은 다음의 <표 40>과 같다.

<표 40> 제 1차 ~ 제 7차 창작 내용

교육	출판사명	내용	쪽
----	------	----	---

과정			
3차	규문	민요풍 멜로디의 작곡	93
	동아	민요풍의 가락 짓기	122
4차	고려	민요풍의 가락 짓기	100
	교학	한국풍의 가락 짓기	57
	화학	민요풍 멜로디의 작곡	104
5차	동아서	민요풍의 가락 짓기	37
	세광B	민속풍의 가락 짓기	129
	지학	전통적인 가락 짓기	67
	동아출	민요풍의 가락 짓기	49
6차	두산	전통 음악풍의 가락 짓기	112
	보진	민요풍의 가락 짓기	79
	세광B	민요풍의 가락 짓기	85
	지학	전통 음악의 가락 짓기(I)	31
		장단에 따른 변형 장단 만들어 치기	133
		전통 음악의 가락 짓기(II)	134
	태림	민속풍의 가락 짓기	121
	태성	전통 음악풍의 가락 짓기	144
현대	가락 짓기1(민요풍의 가락을 지어보자)	98	
7차	교학	소리 북 장단 만들어 치기	48
		변형장단 만들어 치기	79
		민요의 음계를 이용한 전통 음악 가락 짓기	145
	두산	전통 음악풍의 노래짓기	60
	세광	새타령 가락에 의한 가락 짓기	39
		한강수 타령에 의한 가락 짓기	66-67
		강원도 아리랑 가락에 의한 가락 짓기	140
	천재	전통 음악의 가락 만들기	38
	현대	흥겨운 우리 가락을 만들어 보자(I)	106
		- 민요 음계 가락 짓기	
		흥겨운 우리 가락을 만들어 보자(II)	107
- 민요풍의 가락 즉흥 연주하기			

## V. 결론 및 제언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음악교과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음악교과는 2학년의 경우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일정 안에 따라 2011년부터는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며 고등학교 음악교과는 전 학년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음악교과서는 서양음악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국악 내용의 부족함은 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을 거듭하면서 점차 국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국악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실정 속에서 제 1차 교육과정부터 제 7차 교육과정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의 음악교과서내의 국악 내용의 변천을 연구함으로써 실제로 국악 내용이 증가되었는지, 또한 증가가 되었다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는 제 1차에서 제 7차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의 음악교과서 46권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라 이해, 가창, 감상, 기악, 창작 5영역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졌다. 교과서안의 국악의 전체적인 비중을 파악하고, 국악의 전체 내용 중에서 5영역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해, 가창, 감상, 기악, 창작 영역의 변화된 내용을 각각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차에서 제 7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내용의 차수별 평균의 변화를 보면, 제 1차 6.11%, 제 2차 7.53%, 제 3차 11.36%, 제 4차 13.37%, 제 5차 15.21%, 제 6차 23.07%, 제 7차 28.67%로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제 6차와 제 7차에서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 1

차에 비하여 제 7차는 국악내용이 4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 6차와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국악교육의 중요성이 교수·학습 자료인 교과서에 반영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국악내용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국악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서양음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국악보다는 서양음악에 그 내용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악의 영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 1차부터 제 7차까지의 영역별 비중은 가창-감상-이해-기악-창작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가창은 55.5%, 감상 32.2%, 이해 19.39%, 기악 8.15%, 창작 2.75%를 차지하고 있다. 제 1차에는 가창과 감상영역만이 제시되어 영역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 3차 이후로 기악과 창작영역을 포함한 5영역이 모두 제시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창, 감상 이해영역에 치중하고 있다. 기악과 창작영역을 제외한 이해, 가창, 감상 영역만을 보았을 때는 제 7차에서 가장 균형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국악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제고를 중점으로 교과서가 편찬되어 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해, 가창, 감상, 기악, 창작 영역의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영역의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는 제 1차, 제 5차, 제 7차에만 분명히 구분하여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기능학습을 강조하고 음악이론에 대한 사항은 활동영역과 통합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며, 활동영역에서도 이해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목차의 이해부분과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항목화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이해영역은 제 2차 때 음악사 하나의 항목으로 시작하여 제 7차에서는 기타 항목에 이르기까지 총 21항목으로 내용이 꾸준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내용이 추가 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나타낸 것에 불과하였다. 제 6차에 기존에 없던 음악사상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제 7차에서는 세종대왕의 업적, 놀이음악 등

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어졌다.

둘째, 가창영역의 분석결과 가창곡수가 제 2차 교과서에서 적게는 3곡이었던 것이 제 6차에서는 많게는 22곡까지 수록이 되었다. 하지만 가창곡의 평균수는 제 1차 7곡, 제 2차 3곡, 제 3차 10곡, 제 4차 7곡, 제 5차 9곡, 제 6차 12곡, 제 7차 12곡이다. 이와 같이 가창곡 평균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기도 하는 제 3차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이다가 제 4차에서 다시 감소하여 제 5차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증가율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크지 않은데, 이는 교육과정 초기에 가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음악교육이 점차 각 영역의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셋째, 감상영역은 감상곡을 제시한 경우와 감상 자료만을 제시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제 4차까지는 감상목표나 활동에 대한 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목차에서 감상으로 분류해 놓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는 제 5차에서 개선되어 제 5차 교과서부터는 감상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 5차에서 정간보가 감상 자료로 처음 수록되었고 장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제 5차 이후로는 특별한 장르의 증가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히 창작 국악곡의 경우 새로운 곡들이 지속적으로 수록되어졌다.

감상영역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 특징으로는 감상영역에 기악과 창작활동을 통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서양음악과 연계된 구성들도 보인다. 또한 감상에서 정간보 악곡을 제시하는 수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감상영역은 교육과정이 변화 할수록 감상활동의 목표가 분명해졌으며,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넷째, 기악영역은 제 3차 이후로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제 3차와 제 4차에서는 주로 가야금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졌고, 제 5차 이후로 단소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 음악수업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변화로 해석되며 가야금보다는 소장이 용이하고 배우기 쉬운 대

중화된 악기인 단소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금도 제 6차 이후로 그 활용이 증가하였으며, 사물놀이와 장구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악 학습에서의 합주의 강조에 따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기능학습을 중요시 하는데 그것은 주로 가창 학습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악영역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급과 연주가 쉬운 국악기를 활용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작영역은 제 1차에서 제 7차에 이르기 까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적은 영역이다. 주로 민요풍의 가락 짓기가 내용의 중심을 이루었고, 제 6차에 와서야 장단의 변형이나 즉흥연주, 혹은 가락의 변주와 같은 내용들이 추가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기존의 내용들을 세분화 하여 제시한 것일 뿐 특별한 변화나 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악영역과 더불어 창작영역에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로 제시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국악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극명하지만 각 영역의 불균형적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창곡이나 감상곡의 장르나 수적인 변화도 분명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기 보다는 새롭게 등장한 내용을 뒤이어 나오는 새로운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수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내용의 다양화와 질적인 면에서의 다각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악과 창작영역에 있어서 제 7차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여러 다른 활동영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활동을 통한 발전이 도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국악교육의 모습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악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늠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⑨ 음악」. 2008.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IV)」.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1.
- 권덕원 외.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2008.
- 서한범. 「국악통론」. 서울: 태림출판사, 2008.
- 이성천. 「알기쉬운 국악개론」. 서울: 풍남, 2000.
- 이경환. 「초·중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기준(1955~1997)」.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이성천. 「한국의 음악교육을 진단한다」. 서울: 풍남, 1994.
- 이종국. 「한국 교과서 출판 변천연구」 서울: 일진사, 2001.
- 이종국. 「한국 교과서상」 서울: 일진사, 2004.
- 진영은, 조인진. 「교과 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7.
- 허 강. 「한국의 검인정 교과서」 서울: 일진사, 2004.

### [학술지]

- 권덕원. “한국음악교육: 50년의 회고와 전망 음악교육연구”. 음악교육연구, Vol- 27, 2004.

### [논문]

- 김향미.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003.
- 김화정,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내용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09.
- 김효선,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중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가창 내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08.
- 신종만, “일반계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변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6.
- 이시영,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감상곡 비교 분석연구 : 제 4차, 6차, 7차, 교육과정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06.
- 최영복. "한국 교과서 목록 작성 및 그 수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소, 1998.

## ABSTRACT

### A historical study of cont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music textbooks for high schools

Mi-Jung, Moo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music curriculum, a textbook is the important media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school and the contents affect the music knowledge and thinking development of the students. Therefore analysis of the textbook is an essential element for the research of music education. The music education of Korea was focused on the Western music for 40 years and emphasis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199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he its shift in process the by investigating the ratio and cont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music textbooks for high schools.

This study analysed how the ratio and contents of Korean music has been changed in music textbooks through the 46 music textbooks for high schools from the 1st music curriculum to the 7th music curriculum of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ercentag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increased four times from 6.11 % of the 1st curriculum to 28.67 % of the 7th curriculum. Second, the percentages of each domain were 51.52 % of singing, 29.23 % of appreciation, 12.67 % of theory, 5.40 % of instrumental music, and 1.17 % of creativity. There appeared the imbalance of four domains extremely in the 1st curriculum and the imbalance was corrected in the 7th curriculum. Third, the contents of theory has raised continuously. The new contents were contained in the 6th and 7th curriculums. Forth, the number of songs in singing did not altered so much, but the genre of songs was varied gradually in *a-ak*, *sijo*, *gagok*, *japga*, *dang-ak*. Fifth, songs with various genre were presented in appreciation. Especially newly composed Korean traditional music was introduced constantly. Sixth, the contents of instrumental music, which were contained at first in the 3rd curriculum, were introduced in the all music textbooks to the 6th curriculum at last. Among the instrumental pieces, most often introduced instrumental pieces are for *danso*, and pieces for *gaya-geum*, *janggu* are followed in order.

Seventh, the contents of creativity were introduced at first in the 3rd curriculum. This domain has the least share among all domains and the contents almost did not modify.

In consequence,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has grown up quantitatively in the music textbooks for high school.